

한인뉴스

2015

8

VOL. 230

haninnewsinnf@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Next is the new color

SAMSUNG Galaxy S6 | S6 edge



Samsung Galaxy S6
Blue Topaz

Samsung Galaxy S6 Edge
Green Emerald

Brighter photos
In low light

Quick Camera
Launch in 0.7sec

Fast Charging
10 mins = 4 hours of usage*

NEXT IS NOW

*depending on individual usage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hunting)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인천	KE628	2205	0705 ⁺¹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Let's make
our own Story this
Summer with*

LOTTE SHOPPING AVENUE



MVG

VIP

GENERAL



Join Now!
LOTTE Member Cards

IT'S PAYDAY

8월 26일 ~ 29일

up to **70%** + ADDITIONAL **10% OFF** + **10% CASH BACK**

up to **70%** FASHION BAZAAR

8월 18일 ~ 9월 13일

DESIGUAL • TRUE RELIGION • 7 AM
• BEN SHERMAN • HOSS INTROPIA • M&S 외

SUMMER BREEZE

8월 3일 ~ 31일

SK-II LANEIGE LANCÔME
YVES SAINT LAURENT *Kiehl's* *Kanebo*
SINCE 1851 FEEL YOUR BEAUTY

• Beauty Workshop
• New Product Launch • Special Offers

BRAND NEW STORE

heel'n'tote

밀라노, 런던 등 글로벌 Shoes & Bags 컬렉션을 만나보세요.

WWW.HEELNTOTE.COM

SPECIAL EVENT

OLIMPIADE
ROBOTIKA
S I N D O

로보틱 올림피아드

8월 15일 | 메인 아트리움
로봇 경기, 전시회, 댄스 퍼포먼스



바비 슈퍼히어로

8월 28일 ~ 9월 6일 | 편 아트리움

한화생명

고객과 함께한 69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사 한화생명보험(舊대한생명보험)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인고객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개인보험 판매 상품



변액보험: Hanwha Link

보장과 투자를 겸비한 종합 보장 보험으로 사망보장, 의료보장, 치명적 질병(CI) 보장, 재해 장애, 재해 사망 등을 집중 보장



교육보험: Hanwha Education

자녀 대학 입학자금과 학자금(4년)을 지급하는 전통형 보험 상품
자녀 40세 시점 창업자금 추가 지급



건강보험: Hanwha Health Care Plus

보험 기간 중 병원 입원비, 수술비, 중환자실 입원비, 간병비 등을 보장하며 5년단위로 갱신(만기시 납입보험료의 50% 환급)

기업(단체보험) 판매 상품



단체 정기보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질병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통형 단체보험
(치명적 장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고도장해특약 부가 가능)



종업원 퇴직보험

(기업주 요청에 따라 상해사망보장, 의료보장 등 급부 추가 가능)



종업원 단체의료보험

입원, 수술, 외래, 임신/출산, 치과, 안경 등 다양한 보장급부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의 기업 복지형 보험상품

Head Office

Ratu Plaza Office Tower Lt. 10,
Jl. Jend. Sudirman No.9, Jakarta Pusat 10270
Tel : (62) 21 727 881 50

한국인 담당자(자카르타)
개인(황성록 팀장: 0813-1033-4763),
단체(조국환 팀장: 0813-1810-6923)
Company Email: Care@hanwhalife.co.id
Website: www.hanwhalife.co.id



[한·인니 광복 70주년 기념 걷기행사]

금년은 광복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 입니다.

우리과 같이 광복70주년을 맞이하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다음과 같이 광복 경축행사인 양 국가 국민 걷기행사를 자카르타 정부부와 함께 공동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이 공동으로 광복절을 경축하는 최초의 행사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인동포 모두의 행사입니다.

이 역사적인 축제의 행사에 우리모두 참여합시다.

(행사 안내)

1. 일 시 : 2015년 8월16일(일), 오전 6시 ~ 8시
출발전 양 국가 국민체조 (5:30까지 도착)
2. 집결지 : Plaza Selatan (Stadion Gelora Bung Karno)-약도
3. 코 스 : Plaza Selatan → H.I. 분수대 → Plaza Selatan

4. 내 용 : 1부 - 걷기행사
2부 - 경축 Event 행사
5. 기념품 : 티셔츠(단체나 지역적으로 취합되면 한인회에서 사전 배포) 모자, 양국기, 스티커 (행사장 배포)

◆ 주차장 : Pintu 1 으로 들어오시면 행사장 양 옆으로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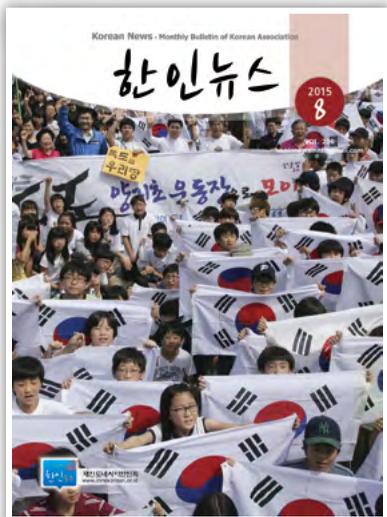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한국 대전 대덕구 광복절 행사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차례.....6

이모저모 한인사회.....8

논설위원칼럼/ 광복의 달 <김문환 논설위원>

인도네시아자문위원 위촉식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 출범식

짚리웅강 환경보호

국립발레단 초청공연

한인니 문화연구원, 한국 카톨릭대와 업무협약

체결

친일파라는 불명예. 전범이라는 타이틀
개인이건 나라건, 역사적 약점으로 인해
자신을 과잉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언제봐도 불편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주권을 빼앗겼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우리의 눈으로 일본의 평화헌법개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우리와 페어플레이 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광복 70주년...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사이의 맞기기에
참 더딘 세월인 듯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집장 홍석영

contents

2015. 8. 통권 230 호

2015
8

이 달의 읽을거리

Green business center, 대전대 LINC 사업단과 협약식 2015 어린이날 행사 김현숙시인, 제7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Jalan Jalan Jakarta/ TOKO MERAH <사공경>.....44
집중! 이 사람 / HANWHA LIFE 현정환 법인장.....24	신성철 칼럼/ 한·인니, 광복70 주년 맛이 함께 걸어요.....46
박정자시인의 사진읽기.....27	화도소.....49
JIKS소식 7월의 경제브리핑.....30	국립박물관을 다녀와서 <이우철>.....50
지상갤러리 르네 마그리트, 회귀 <김선옥>.....34	문화탐방기 <최문정>.....52
8월의 행복에세이<서미숙>.....36	법률해설/ 외국인 인력고용에 관 한 신 노동부 장관령(1) <이승민>.....56
모럴 다이어트<범상규>.....39	내 마음의 뜰/ 민들레의 적도 <이태복>.....59
	드라마로 배우는 BAHASA <허영순>.....60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복의 달

우여곡절 끝에 수까르노 자택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
왼쪽에 독립준비위원회(PPKI) 장, 부 위원장인
수까르노, 핫따가 서 있다.

김문환/논설위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조카 이 우 중령은 중국과전을 마치고 희망했던 경성근무 대신 히로시마에 본부를 둔 제2총군 참모본부로 발령받게 된다. 전입신고를 한 지 2개월쯤 되던 8월 6일 아침시간, 말을 타고 출근하던 그는 왼쪽에 피폭되어 그 다음날인 1945년 8월 7일 병원에서 사망한다. 이 우의 시신은 항공기편으로 서울로 운구되어 6일 후인 8월 15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선총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된다.

두 번째 원폭이 나가사키에 투하된 8월 9일, 수카르노, 핫따, 라지만 3인의 독립준비위원회 지도자들은 남방총군사령관 데라우치 히사이치 원수의 초청을 받는다. 이들이 탄 군용기가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싱가포르에 불시착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카스로 사이공 북동쪽으로 320 키로 떨어진 휴양지 달 랏(Da Lat)에 도착한다. 이들을 맞이한 데라우치 원수는 인도네시아 독립이 8월 24일자로 이행되도록 유도한다. 8월 14일 자카르타 꼬마요란 공항에 무사히 귀임한 3인의 민족대표들은 급진적인 ‘멘헝청년그룹’에 의해 일본이 만들어 주는 독립이 아닌 민족 스스로의 독립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이들 청년그룹은 지하방송을 통해 일본이 이미 8월 14일자로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던 터였다. 데라우치의 언질과 청년그룹의 압력 사이에 끼여 혼란스럽던 수카르노가 ‘즉각적인 독립선언’을 완강히 거부하자, 8월 16일 새벽녘에 수카르노 부부와 생후 9개월 밖에 안된 장남 군뚜르, 그리고 핫따가 이들 그룹에 의해 자카르타 근교 령아스덴글록에 위치한 의용군(PETA) 기지로 납치된다.

납치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자카르타 주재 일본해군 무관부 소속의 현지인 보좌관인 수바르조가 목숨을 건 중재를 시도한 끝에 8월 16일 늦은 밤, 수카르노 일행은 가카스로 풀려 나와 17일 새벽 멘헝지역에 위치한 마에다 제독의 사저에서 독립선언서 기초를 마치고 오전 10시에 수카르노의 자택 앞마당에서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

9월 9일 조선총독부(현 중앙청) 회의실에서 미제24군단장 존 하지(John Hodge) 중장이 아베노부유키 일본 총독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내며 일장기를 끌어내리고, 대신 성조기를 게양한다. 이어 가두행진에 들어간 예하 미7사단 장병들은 연도의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체를 순조롭게 진행한 후 그들을 귀국선에 승선시킨다. 이와는 달리 영국군 공정부대 7명이 9월 8일 자카르타 꼬마요란 공항에 낙하하고, 3주 후인 9월 29일에는 버마전선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크리스티슨 중장이 탄중 뿌리옥항을 통해 자카르타에 입성하지만 주민들은 이들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며칠 전인 9월 19일 수라바야에서 네덜란드인



항복조인식을 마친 후 시가행진에 들어간 미제7사단 32연대 장병들을 환영하는 서울 시민들



1945년 9월 9일 총독부(중앙청) 홀에서 하지(John Hodge) 장군 입회 하에 항복조인서에 서명하는 아베 노부유키 조선총독

폴르그만이 야마토호텔(현재 Hotel Majapahit)에 네덜란드기를 게양하려다 군중들에 의해 피살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으며, 10월 25일 수라바야에 상륙한 팰러비 준장이 군중들에게 피격되어 사망하는 등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독립선언 일주일 후인 8월 22일 국민방위대(BKR)가 설치되고 10월 5일 국민방위군(TKR)으로 증편된 정부군은 이로부터 4년 반 동안 영국군, 네덜란드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전개하게 된다. 주로 케릴라잔에 의존하던 정부군은 1948년 네덜란드군의 제2차 무력공세 앞에 대통령을 비롯한 전 각료가 체포되어 수마트라 지역과 리아우 지역 오지에 연금되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유엔을 무대로 펼친 외교전 덕분에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되어, 1949년 12월 27일 헤이그 원탁회의를 통해 종전이 성립되어 인도네시아 연방 공화국(RIS)이 성립된다. 이승만 정부도 12월 31일자로 이를 승인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12세기 동부자바 지역 다하왕국의 자야바야왕이 예언한대로 ‘백인종의 지배와 왜소하고 눈이 찢어진 황색인종의 옥수수대 수명 정도의 짧은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의 신천지를 향해’ 수카르노, 나수피온 쌍두마차는 외세배척과 반란진압이라는 이중고를 헤쳐나가며 건국의 여정을 시작한다. 특히 대학시절부터 지하운동에 가담하여



10여 년간 수감생활을 겪었던 수카르노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내 ‘대서양헌장’에 입각한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출중한 대중연설 실력을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민족주의 의식을 한껏 고취시킨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패망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의해 거의 동시에 각각의 독립을 맞이하게 된 공통점이 있다. 1948년 마디운 공산당봉기와 여순반란사건, 그리고 9.30 사태와 5.16군사혁명이라는 큰 변곡점을 거쳐 유사한 전철을 밟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G20, MIKT(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그룹에 합승하여 미래를 향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기도 한다. ‘광복의 달’ 8월이면 고국의 언론은 ‘양철성의 영웅담’을 발굴하거나, 또는 ‘위안부 특집’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는 일이 정례화 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출발점인 독립선언일을 맞아 전국 방방곡곡은 메라뽀띠기로 물결을 이루며 장엄한 행사가 대통령궁 앞뜰에서 펼쳐진다. 우리 한인사회도 이들의 기념행사를 언론매체를 통해, 또는 길거리에서 직간접으로 목도하면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어 자주독립, 경제기적을 이룩한 조국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프라이스 워터 쿠퍼사가 2050년 인도네시아의 국민총생산이 8위권으로 진입하여 12위권의 통일한국을 앞선다고 예측한 자료를 보면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상호 보완적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 할 파트너 국가임을 인식하게 된다.

1945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열린 독립조사위원회(BPUTKI) 제1차회의에서 수카르노는 ‘판자실라(Pancasila)’ 건국이념을 제안하였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국인유학생의 군복무휴학 애로해소 지원

1. 최근 인도네시아에 유학하는 한국인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군입대를 위해 휴학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는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 휴학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가장 많은 한국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이 군휴학을 허용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반뜰주 땅그랑의 UPH(Universitas Pelita Harapan)에는 인도네시아 대학 중 가장 많은 70여 명의 한국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학생들은 학생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3. 대사관에서는 지난 4월, UPH 한국학생회를 통해 학칙에 장기휴학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인 남학생들이 군휴학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UPH측과 군복무휴학 허용을 위해 협의하였습니다.

- UPH는 학칙상 학부생은 최대 4학기 휴학이 가능하지만 연속휴학은 입학연도에 따라서 2학기 또는 3학기까지만 허용하여 현재 21개월 이상인 군복무기간 동안 4학기 이상 휴학하려면 대학관계자와 여러 번 면담을 거쳐 특별허가를 받아야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대사관에서는 UPH측에 한국의 병역제도와 군복무기간을 설명하고 한국인학생이 군입대시 4학기 이상의 연속휴학을 허용해줄 것을 학칙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UPH측은 한국인 남학생이 군복무 휴학을 할 때는 연속해서 24개월 또는 36개월 연속하여 특별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대사관과 한국학생회측에 서한으로 알려와 앞으로 군입대하는 한국인남학생들은 예외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5. 다른 대학의 경우 학부 신입학보다는 교환학생, 어학연수생이 많아 아직 군휴학 사례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같은 문제가 다른 대학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사관에서는 한국의 병역제도를 설명하고 군입대 휴학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학생들이 많은 UI, UGM, BINUS에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이들 대학의 한국학생회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송부하여 군복무 휴학신청시 활용하도록 하였고,

- 향후 인도네시아내 대학에서 군복무 휴학에 따른 애로가 있을 경우에 대사관에 알려주면 대학측과 협의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대표이메일 :

koremb_in@mofa.go.kr,

전화 : +62-21-2967-2555

6.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류가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특히 한국청년들이 인도네시아를 유학지로 선택하여 전문성을 키우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사관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한(韓) 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
Be Hansang, Go Global!

제14차
세계한상대회

THE 14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5. 10. 13(화) ~ 15(목)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주최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관  재외동포재단,  경상북도,  경 주 시, 매일경제 • MBN

후원 외교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인도네시아 자문위원 위촉식

<8천만이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활동 목표로 제 17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 자문위원들이 위촉되다.

전 세계 약 1만9천여명이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이하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가운데 동남아남부협의회 인도네시아 본부에서는 34명의 재인도네시아 동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조태영 대사, 승은호 전 아세안 부의장, 송창근 아세안부 의장, 전민식 동남아남부협의회장, 안선근 아세안 간사, 이철훈 부회장, 박현순 부회장, 이희경 재무간사, 이지완 부간사등 인도네시아 본부 자문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본 행사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조태영 대사는 “민주평통이 앞으로 국민들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며,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아주기를”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언을 전달하며 “국민들 속에 들어가는 자문위원들이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승은호 전 아세안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 통일기반구축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제17기 아세안 부의장으로 임명된 송창근 부의장은 “해외동포사회의 롤모델이 되며, 국제적인 지식을 갖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이 되기를, 각 지역의 탈북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민주평통 위원들이 되는 것” 이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의 평통 제17기 해외간부워크숍에서 협의한 활동방향이라고 전달했다.

전민식 동남아남부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라는 것” 을 강조하며, “모든 자문위원들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헌신적인 봉사와 참여로 동포통합과 통일의 교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위촉장전수식에서 조태영 대사는 자문위원들 모두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제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남아 남부자문위원의 임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위촉장수여 후 전민식 회장과 박현순 부회장의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조직도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대사관에서 준비한 동영상 ‘충혼을 기리며’ 를 시청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출범식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전민식)는 JW 메리어트호텔에서 ‘함께하자 통일준비, 앞당기자 통일대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기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조태영 대사, 승은호 명예 부의장, 송창근 부의장, 신기엽 한인회장등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동남아남부협의회에 축하와 성원을 보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제17기 인도네시아 본부 자문위원은 34명, 싱가포르지회 17명, 말레이시아지

회 13명, 브루나이 3명, 동티모르 1명으로 통일 준비와 국민통합의 소임을 갖고 활동하게 된다.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간사임명장 수여, 개회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방향보고, 자문위원의 신분과 역할, 협의회 주요사업보고 등에 이어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조윤영 교수의 통일 강연회가 이어졌다.

전민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이번 출범식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심어주는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으로 통일전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슬며시 올수 있다.”며 소통하는 리더가 되길 당부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통일 미래인재육성, 국민통일공감대 형성, 통일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활성화하는 등 평화통일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찢리웅강 환경보호 캠페인

코린도 그룹은 조림관 산림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보고르- 자카르타 구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찢리웅강의 수질이 쓰레기로 인해 오염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주) 아스펙 금봉 (PT Aspex Kumbong/ 보고르 찢릉시에 위치한) 과 함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 일환으로 강 상류 Sempur 흔들 다리 부근 청소를 통해 Bersih Ciliwung” (깨끗한 찢리웅강 만들기) 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2015년8월 01일(토))

코린도 그룹 내 외국인 근로자와 현지직원 수백 명이 “Aksi Bersih Ciliwung” (깨끗한 강 만들기) 에 참여할 것이다. 본 행사는 코린도 그룹 승범수 사장이 선도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승범수 사장은 금번 행사에도 참여한다.

승범수 사장은 (코린도 그룹) “찢리웅강의 수질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활동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깨끗한 강 만들기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특히, 코린도 직원들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 라고 전했다.

“2015년7월 27일 강의 날을 맞아 ‘Aksi Bersih Ciliwung’ 행사가 초석이 되어 인도네시아 전역의 강의 깨끗해 지길 바랍니다.” “코린도 그룹에서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교두보가 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건강하고 깨끗한 강을 실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라고 코린도 그룹 CSR팀과 깨끗한 강 만들기 프로젝트 팀장이며 코린도 그룹 인력관리 총무부 부장인 J. Andre Roberto 씨가 포부를 전했다.



BALLET.ID

COMMEMORATING KOREA AND INDONESIA
70TH YEAR OF INDEPENDENCE

KOREAN EMBASSY AND KOREA FOUNDATION ARE PLEASED
TO INVITE KOREAN NATIONAL BALLET TO JAKARTA
TO COLLABORATE WITH BALLET.ID

PRESENTING

KOREAN NATIONAL BALLET
국립발레단

Ballet Chamber Opera

Marlupa
KOREA FOUNDATION

NYD
NATIONAL YOUTH DANCE

THE AUSTRALIAN BALLET

BAYERISCHES STAATSBALLET
AND DANCERS FROM AUSTRALIA AND CZECH REPUBLIC

ALSO ATTENDED

 **KANG SUEJIN**
ARTISTIC DIRECTOR
KOREAN NATIONAL BALLET

WITH PERFORMANCE BY

 **LEE JAEWOO**

 **KIM LINHO**

 **LEE DONGHOON**

 **LEE SUNWON**

AND STAR-STUDDED LINE-UP

AT
**1ST INDONESIAN
BALLET GALA**

CIPUTRA ARTPRENEUR THEATRE
22ND AUGUST 2015 AT 1 PM & 7 PM
WWW.BALLET.ID/GALA
www.kiostix.com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단장이 이끄는

국립발레단 인도네시아 발레 갈라 초청공연

BROUGHT TO YOU BY

BALLET.ID

한국문화원

KOREA FOUNDATION

Australian Embassy
Jakarta

Embassy of the Czech Republic
Kendaraan Besar Republik Ceko

OFFICIAL VENUE PARTNER
CIPUTRA ARTPRENEUR
THEATRE - Jakarta

MEDIA PARTNER
Jakarta Post

TICKETING PARTNER
KIOSK

NOW!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은 인도네시아 발레파운데이션과 협력하여 발레리나 강수진 단장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을 초청, 인도네시아 발레 갈라쇼의 메인 세션에서 한국의 고품격 공연 예술을 선보인다.

공연은 자카르타 최고 공연장 중 하나인 Ciputra Artpreneur Theater 에서 8월22일 오후 1시, 7시 두 차례 공연 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단장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은 이번 공연 2부 메인 무대를 장식하며 돈키호테, 호동왕자 등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23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레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마스터클래스-워크숍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래 번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중견국 협의체 MIKTA의 일원인 한국과 인도네시아, 호주의 예술인들이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의미를 밝혔다. (티켓 구매 www.kiostix.com)

< 주요 일정 >

8월 22일(토) 오후 1시

7시 Ciputra Artpreneur Theater

8월 23일(일)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 Jakarta Theater, TIM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한국가톨릭대와 업무협약 체결



한*인니문화연구원과 한국가톨릭대학교가 지난 7월 7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인니문화연구원 사무실에서 포괄적 개념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용승 교학부총장이 이끄는 가톨릭대학교 대표단이 지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해 현지 기업과의 산학협력과 현지 대학과의 교류 활동을 펼쳤다.

가톨릭대 대표단은 업무협약식에 앞서 신기엽 한인회장, 조규철 한인회 부회장, 김재민 사무국장, 송재선 한*인니문화연구원 이사장,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연구원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인도네시아 현황, 가톨릭 대학에 유학할 인도네시아인 장학생 추천, 공동연구, 공동문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원과의 상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가톨릭대와 인도네시아 소재 대학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②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교류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 공유 ③한국어 교육과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산학 및 문화 교류 협력 ④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가톨릭대 대표단은 이번 자카르타 방문 중 코린도, 우리은행, SKY LBS(레젤그룹) 등을 방문해 산학협력 및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인도네시아 가톨릭계 대학인 아트마자야대학과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관계자들과 만나서 유학생 교류, 상호학점 교류, 온라인 강의, 공동학위(복수학위) 등 교류활동 가능성을 타진했다. 가톨릭대 대표단은 향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과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인니문화연구원과 가톨릭대학은 2012년부터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해왔고, 먼저 가톨릭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과정을 마련해 2013년 1-2월, 2014년 7-8월, 2015년 1-2월 등 세 차례 실시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제공]



Green Business Center, 대전대학교 LINC사업단과의 협약식

지난 7월 14일 Green Business Center와 대한민국 대전시에 위치한 대전대학교 LINC사업단과의 협약(MOU) 체결식이 있었다. Green Business Center의 입주업체와 대전대학교 LINC사업단의 글로벌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의 환경조성 필요성이 서로 맞아 상호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Green Business Center는 인도네시아 친환경 산업 및 기술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ASEM 회원국 중소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3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마케팅, 회계, 법률, 컨설팅, 인도네시아어 교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대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연간 약 40억원 규모)을 받아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이봉환 단장

(부총장 겸직), 정한일 부단장 이하 약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한방바이오, 문화융합 등의 3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1,000여 개의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그리고 산학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싱가포르 등 아셈 회원국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현지 취업, 현지 창업 등을 확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 퀴즈대회 안내 (대한민국 근현대사)

1. 대회목적 :

- * 동포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 *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주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며,
- *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및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 *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2. 대회요강 :

- 1). 행사명 : **도전! 역사왕**
- 2). 대 상 : 인도네시아 거주 동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3). 일 시 : 2015년 9월 24일(목, 공휴일), 08:00~12:00
- 4). 장 소 : JIKS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대강당)
- 5).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www.kff.or.id/kffking) → 전자우편 (E-Mail : kff_jkt@naver.com)
으로 신청 → 예상문제(www.kff.or.id/kffking) 사전학습 → “도전! 역사왕” 참가
- 6). 신청기간 : 2015년 9월 10일 까지 (참가비 없음)
- 7). 교재/범위 : 대한민국 근현대사시리즈 (박윤식 저 <http://blog.daum.net/gingko1280/12647797>)
* 제 1 권 & 제 4 권, 독도 및 인도네시아 상식
- 8). 시상 : 대회 당일

구 분	대 상	상 품
퀴즈 왕	최후 1인 (우승자)	노트북, 태블릿 pc, 한국왕복 항공권, 핸드폰, 외장하드, 고급형 USB ...등등
우수상, 노력상, 기타상	초·중·고 : 각 (?)명 및 대학생 : (?)명	
참가상	참가자 전원	

- 9). 기타 : 순서 중, 행운권 추첨

3. 문의 :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사무처 (kff_jkt@naver.com)
(정찬우 총무 : 0811 917 7007, 정성재 추진위원장 : 0877 8499 7700). 끝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2015년 어린이날 기념 행사 개최’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최용기 지부장)는 미원 인도네시아(대상주식회사) 후원으로 8월 8일(토) 오후 2시에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Biarkan anak bicara(아이들이 이야기 하도록 하자!)라는 주제로 자카르타 모닝스타 아카데미 뮤직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7월 23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있어 이때를 맞춰 굿네이버스에서는 매년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진행하였고 올해는 르바란 일정으로 인해 8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별히 올해는 작년 굿네이버스에서 제작한 두 곡의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노래인 Bersama(Milik Kita)와 Anak Indonesia를 대중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겨워할 수 있도록 노래에 맞춘 안무를 직접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 후원 아동들과 한국에서 이번 무대를 위해 인니로 온 노아(Noa)팀이 함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인기가수 겸 사회자인 Tasya Kamila와 모녀 가수인 Naura & Nola Be3의 공연과 더불어 Pak Tarno의 매직쇼 등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공항 세관 신고 관련 안내

1. 한국에서 1만불 이상의 외화(한국 원화 포함)를 소지하고 인도네시아로 여행오시는 분들께서는 세관신고서에 표시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래, 일부 여행객분들께서 1만불 이상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세관 검사에 걸려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는 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발리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경우 한국공항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일 동 면세물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인니 세관에서 제공하는 보관증(Surat Penegahan Barang/Bounded Receipt)에 동 면세물품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시고 보관증은 소지하신후(보관증은 두장으로 되어 있으며 한장은 여행객, 한장은 세관이 보관함)면세물품을 세관에 보관한 뒤, 발리를 떠나실때 세관에 동 보관증을 제출하시고 맡겨 놓으신 면세물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3. 한편 인니 세관에서는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밀수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바, 한인 여행객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리는 각국의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면세물품에 대한 조치가 엄격한 바,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 김현숙시인

시는 '인생의 새로운 연결고리'

지난, 30일, 재외동포문화재단은 제 17회 재외동포 문학상(우수상) 수상자로 '엄마의 딸' 을 응모한 김현숙시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본 문학상은 해외 거주 7년 이상 되는 한국인에게 응모 자격을 부여하며, 매 해 3월에 시와 소설, 수필 세 분야에서 공모를 내고 응모자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 수상이 뜻 깊은 점은 수상자로 발표된 김현숙시인은 15, 16회 본 문학상을 수상한 최장오시인의 아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과 부러움을 받고 있다. 우선 수상자의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자.

“수상소식은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남편이 제 15, 16회 연속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극 받아 작년에 응모를 했으나 떨어졌고, 올해는 포기하고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강한 권고에 못 이겨 마감 전날 부랴부랴 작품을 응모하였죠. 아무 기대감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수상소식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아는 분들의 축하인사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난 시인은 두 살 무렵, 집안의 맏아들이셨던 아버지는 군을 퇴역하고 충남 당진인 본가로 가족을 데리고 귀향을 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당진이 삶의 고향이 되었고 창작과 놀이의 무대가 되었다. 수상작, '엄마의 딸' 은 이 공간을 그려내고 있다.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공간은 꼭 필요하겠죠. 어렸을 적 어머니가 알뜰히 가꾸던 한옥의 뒤뜰이 6남매의 맘머느리로 시집 온 어머니에게는 그런 의미의 공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장독대를 중심으로 온갖 종류의 꽃들이 넘치고 딸기며 앵두, 포도나무 등이 들어찬 공간이었죠. 저는 그 곳에서 소꿉놀이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저에게 즐거운 놀이공간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시집살이' 이란 낯선 삶의 고통과 고뇌를 꽃과 나무를 심으며 승화시키는, 당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쓴 시입니다.”



창작은 혼자와의 긴 싸움이다. 글 쓰는 이의 가슴 속은 늘 관심과 애정의 대상들로 채워지고 비워지기를 수없이 반복한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무릇 글쓰기란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의 가슴 안에 사랑을 들여 놓는 일이라고 전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에 대한 공부와 시작에 더 전념할 생각이며, 훗날 더욱 깊어지고 곱삭은 시들이 모아지면 남편과 함께 부부시집을 내고 싶은 게 꿈이라는 김현숙 시인, 시의 연결고리는 더욱 단단히 조여지리라 생각한다.

연애도 좋다 시도 좋다 알고 보면 시도 연애다 별볼일 없고 차별성 없는 게 우리네 삶이고 보면 누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그대를 먼저 알아가는 그 설렘이 나는 좋다, 그리하여 그대를 사랑하게 되고 언젠가는 떠나보내게 된다, 그 때는 나는 한 번 더 좋다 떠남이 좋다 얼떨결에 저지른 일이라고 변명하든, 아니면 열렬히 사랑했노라고 진지하게 말하거나 표정 짓는 순간 대상인 詩는 얼마나 떨리겠는가 그 떨림이 남기는 여운이 좋다 도입부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 행이 좋다 모든 번잡함과 열망과 애증을 다 내려놓고 말없이 돌아서는 나를 발견하는 일이, 곧 내가 詩를 쓰는 일이다

박운배 시집 『연애』 중, 自序에서

글: 김주명(시인, 롬복거주)



집중! 이사람

한화생명 현정환법인장



Hanwha Life

한화생명은 1946년 한국 최초 생명보험사로, 2002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이후 글로벌 금융사로 거듭나기 위해 베트남(2009.4월), 중국(2012.12월) 그리고 인도네시아(2013.10월)에 생명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2012년 舊대한생명에서 한화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인도네시아에는 2102년 12월 소규모 현지 생보사를 인수하여 영업조직과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2013년 10월부터 정식으로 보험영업을 개시했다.

Q. 한국 최초 생보사 인니 진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한국 국내 보험시장은 보험 가입률이 95%를 넘어 이미 포화상태로이므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화생명은 2009년 4월 한국 생명보험사 최초로 베트남에 2012년에는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했으며, 이어 인도네시아에 한화생명의 3번째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Q. 인니 보험시장 현황과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5천만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 대국이며, 특히 40세이하 인구 비중이 70%가 넘는 매우 젊은 인구구조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률은 이제 불과 6%밖에(한국 95%)되지 않아 향후 인니 경제 성장에 따라 중산층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인니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무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글로벌 보험회사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오래 전부터 진출하여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사는 모두 53개사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한국에서의 생명보험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생명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생명보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진출과 정착에 따른 애로와 보람이 있다면

제가 인도네시아 법인 부임 전 베트남에서 똑같이 현지 생보사를 설립하였다. 종교와 문화의 차이인지 인도네시아 직원들의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고, 자기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여 회사를 설립 후 영업 개시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해외진출의 성공은 현지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애사심) 얻어내는데 있다고 생각하여 “회사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 보장”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복지향상, 승진, 한국연수, 포상 등을 공평히 실시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한화생명 직원으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스킨쉽 강화와 가족과 같은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점차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진출 초기에 비해 급격히 향상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이직률과 우수한 인재 확보 그리고 전문인력 개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등 5개 영업소에서 현지인 영업조직을 구축 중이다. 올해 안에 족자카르타와 반둥 등에 영업점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니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단체 종업원 의료보험과 퇴직보험 등을 개발하여 이미 판매를 개시하였고 한국기업으로부터 많은 문의와 좋은 반응을 얻어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한국계 및 인도네시아 로컬 은행과 방카슈랑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 할 것이다.

이제부터 현지법인의 내실 성장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10년내에 업계 10위권으로 도약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니 생보사 추가 인수 기회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Q. 한인 커뮤니티 소감 및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정식으로 개업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서야 동포 사회에 인사 드리게 되었다.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일류 생보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사회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한화생명도 짧은 기간 내 인니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로 성장한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최대한 기여하겠다.

Q. 향후 영업 전략은 ?

한화생명의 기본적인 해외진출 전략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현지화를 바탕으로 진출 국가의 일반 대중 대상의 보험영업을 통해 현지 최우수 생보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인 3명 그리고 현지직원 120명으로 자카르타에 본사와 영업소가 있으며, 수라바야, 메단, 스마랑 그리고 발리





Hanwha Life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외국인), 가족, 회사가 가입할 수 있는 현지 보험 안내



개인 및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Unit Linked) 이 있으며 입원비 및 수술비 등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건강보험과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보험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KITAS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 동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종업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종업원 단체의료보험, 상해보험, 퇴직보험 등이 있는데 종업원 단체 의료보험(Group Health Insurance) 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 단체 의료보험보다는 한도 내에서 의료비용을 현금지원(Reimbursement) 하고 있으나, 법인세 계산시 현금지원금액은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종업원 단체 의료보험을 이용할 경우 법인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단체 의료보험을 이용할 경우 법인세 비용 절감뿐 아니라 관리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치료항목별 한도설정 등을 통해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BPJS)은 사전에 본인이 지정한 1차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야 2차 및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관별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진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절차를 따르면서 실제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사용하는 의약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BPJS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의 중간관리자 및 한국인에게서는 국민건강보험(BPJS)이 보장한도가 작고 불편한 점이 많아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BPJS 이외에 생보사의 단체의료보험(Group Health Insurance) 을 추가로 가입하여 부족한 BPJS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종업원 단체의료보험은 인도네시아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어떤 복리후생보다 만족도가 높아 우수직원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 특성상 보험료와 실혜택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의 보험 적용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화생명 한국테스크는 한국기업을 위하여 특별팀을 운영 중으로 언제든지 한국어로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순간 & 영원



[사진] Sabine Schulte / Deutschland

한여름 화염 속에서
불과 망치의 나날
견디며
담금질로 굳힌 호미
힘줄 불끈 선 팔뚝

그의 가을은 넉넉하소서

JKIS · Java Palace Hotel,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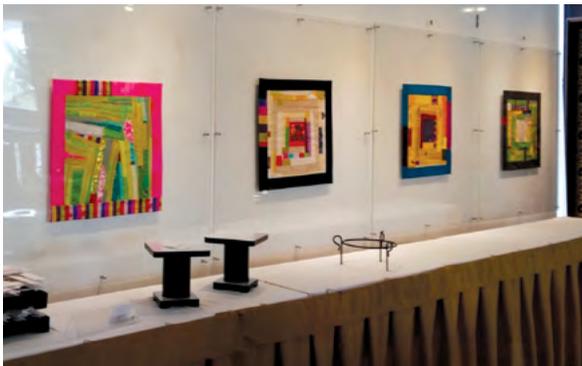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 -



지난 7월 9일(목),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KIS, 교장 김승익)와 Java Palace Hotel(이하 JPH, 대표 박재한)은 상호 간의 산·학 협력 체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MOU 협약식을 가졌다.

JPH 2층 회의실에 마련된 협약식에서 JKIS 김승익 교장과 JPH 박재한 대표는 JKIS의 모토이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Global+Local)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하여 JKIS 학생들은 호텔 관련 직업과 관련하여 진로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을 JPH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는 8월 10일부터 5일간 JPH에서 진행되는 진로 인턴십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여섯 명의 JKIS 학생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은 호텔 관련 직업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게 되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과 적절한 진로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익 교장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최초로 호텔업계에 뛰어드는 박재한 대표의 행보는 자카르타 교민사회는 물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각기 가진 다양한 역량을 해외 무대에서도 얼마든지 펼쳐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롤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박재한 대표의 안내로 호텔 시설을 두루 돌아보았다. 고급 내장재와 가구, 절제된 세련미가 돋보이는 객실 인테리어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홀에는 퀼트 아트와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지역사회와 교민사회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관은 무료라고 한다. 또한 Ramadan 기간 동안 현지인들에게 Buka Puasa를 저렴한 가격에 호텔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JPH에서 JKIS 학생들이 진로 체험은 물론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멘토링 기회를 더불어 갖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JKKS, 르바란을 맞아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학용품 전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KKS, 교장 김승익)는 르바란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청소년 고아원(PUTRA UTAMA 4)을 방문하여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6월 26일, JKKS는 지역주민 지원비와 초등과정 불우이웃 성금을 모아 조성된 총 1000만 RP의 지원금으로 고아원 어린이 약 100여 명에게 학용품과 간식을 전달했다.

고아원장(Drs,H. Handoko)는 이번 전달식에서 JKKS의 지원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2015년초 DKI 시장이 고아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JKKS와는 형제(Saudara)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JKKS는 매년 크리스마스와 인도네시아 명절에 지역사회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상호간 우호적 관심과 교류의 폭이 넓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7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니정부, 23일부터 수입관세 최대 5배 인상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관세 인상으로 국내 생산품들이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ی겠다는 취지이다.

식료품을 중심으로 미용제품, 옷, 가방, 냉장고,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등 국내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주요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상된다.

인도네시아의 2015년1분기 경제성장률은 4.7%였다.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기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의 원인을 가계소비 위축 때문이라 판단, 따라서 수입품 관세를 인상해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재무부 재정정책국의 수아하실 나자라 국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나자라 국장은 “이미 상당수 국산 제품이 가격이 상승한 수입품의 대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곧 최근 경기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커피의 수입관세는 기존 5%에서 20%로 15%p 증가했다. 가공육은 5%에서

30%로, 의류와 장신구는 10%에서 12.5%~15%로 인상됐다. 자동차 역시 기존 10%와 40%에서 20%와 50%로 각각 10%p씩 증가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제품은 수입주류다.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는 기존(30%)의 5배인 150%로 인상했다. 즉, 알코올도수 80% 미만의 수입주류는 모두 150%를 적용한다.

이번 수입관세 인상정책은 ‘수입품에 관한 세금 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1년 제 11호’의 개정령인 ‘2015년 제10호’에 근거하며, 23일부터 시행됐다.

안톤 헨드라나타 다나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수입관세 인상이 적용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상류층을 겨냥한 것이라며 “상류층을 겨냥한 관세 정책은 위축된 가계소비를 신장시키는 데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에릭 수간디씨는 “이처럼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관세정책은 오히려 외국인 사업자들의 반감만 살 수 있으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BKPM, 올해 2분기 투자실현 135조 루피아 돌파 '역대 최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올해 2분기(4~7월) 동안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인도네시아 내 투자실현이 135.1조 루피아를 달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 116.2조 루피아 대비 16.3% 가까이 증가했다.

BKPM의 투자자본관리국의 아자르 루비스 국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역사상 올해 2분기에 가장 높은 투자실현을 기록했다며 “2015년 2분기 투자실현은 135.1조 루피아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자본 투자(PMDN)는 42.9조 루피아로 31.8%, 외국자본 투자(PMA)는 92.2조 루피아로 68.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KPM에 의하면 올해 1분기 투자실현 규모는 124.6조 루피아로, 2분기에는 이보다 8.4%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자본 투자는 △식료품 산업/8조 루피아 △기초 화학, 화학용품 및 약품 산업/7조 루피아 △전기, 가스, 상수도 산업/5.4조 루피아 △주택, 공업단지, 상업단지 산업/4.3조 루피아 △기초공업/3.3조 루피아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이뤄졌다.

선호 투자처 5곳은 동부 자바, 서부 자바, 동부 깔리만탄, 반뜰과 남부 수마트라 지역 등이었다.

아자르 국장은 “전체 국내 자본 투자 가운데 59.5%인 25.6조 루피아가 제조업 부문에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자본의 5개 주요 투자 분야는 △교통, 창고, 정보통신 산업/22억 달러(미국) △광업/10억 달러 △건설업/6억 달러 △기초공업/6억 달러

△비금속 광물 산업/5억 루피아 등이었다. 전체 투자 중 34% 달하는 25억 달러가 제조업 부문에 투자됐다.

선호 투자처 5곳은 서부 자바, 자카르타, 동부 깔리만탄, 반뜰과 동부 자바 지역이었다.

2분기 국내투자 상위 5개국은 말레이시아(23억 달러), 싱가포르(11억 달러), 일본(4억 달러), 미국(3억 달러), 그리고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2억 달러) 순이었다.

아자르 BKPM 투자자본관리국장은 “전체 투자실현 중 55.3%에 달하는 74.6조 루피아가 자바 지역 내에서, 나머지 44.7%인 60.4조 루피아가 자바 지역 외에서 이뤄졌다”며 ‘非자바 지역’ 투자는 지난해 동기 47.1조 루피아 대비 28.2%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2분기 국내고용도 지난해 동기 35만803명 대비 2만여 명 증가한 37만945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은 각각 14만7,868명과 22만3,077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판중 브리옥 노조 파업, 9시간 만에 업무 복귀 '수백억 루피아 손실'

28일,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 (JICT)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화물 선적 및 하역 업무가 9시간 가량 마비됐다. 이 시간 동안 판중 브리옥 항만 정문으로부터 컨테이너 운송차량 행렬이 3km 가까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항만인 북부 자카르타의 판중 브리옥의 운영사인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JICT, Jakart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직원들이 28일 파업을 강행해 물류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경찰은 노조에 대해 업무 및 영업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혔다.

현지언론에 의하면 이번 파업은 JICT 인사부 등 직원 2명이 27일 해고통보를 받은 것에 격분한 직원들의 반발에서 불거졌다.

파업은 화물 선적 및 하역 담당 직원 100여 명이 오전 8시경 컨테이너 트럭 운송업무를 방해하면서 시작됐다.

JICT 관계자에 의하면 파업은 오후 3시경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이미 선적과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항만으로부터 3km 가까이 줄지어 서며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JICT의 노조는 △일방적인 해고통보 취소 △JICT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항만공사 빨린도II (PT Pelindo II) 리노 사장의 퇴임 △홍콩계 항만운영사 허치슨 포트 홀딩스(HPH)가 가진 JICT 공동운영권 계약갱신의 취소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JICT는 총 100헥타르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항만운영회사로 회사의 주요 주주는 항만공사 빨린도II와 홍콩계 항만운영사인 허치슨 포트 홀딩스(HPH)이다.

앞서 HPH의 JICT 공동운영권은 계약상 2019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빨린도II 측은 계약기간을 20년 연장할 의향을 밝혔다.

리노 수마르노 국영기업부 장관이 지난 6월에 계약연장을 승인한 뒤, 향후 2039년까지로 계약이 갱신 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였다.

이에 JICT의 노조는 '국민주의(Nationalism)'를 외치며 "인도네시아 스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외국자본에 항만운영권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달 8일에는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하기도 했다.

리노 사장 "월급은 1억 루피아나 받으면서..."

리노 빨린도II 사장은 28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중 브리옥 항만의 물류업무는 국익과 직결된다"면서 "사전통지 없이 강행한 파업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리노 사장은 "JICT 고위 간부 월급은 1억 루피아로 내 월급과 거의 같은데 왜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HPH와의 계약갱신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빨린도II"이라고 주장했다. 유습 깔라 부통령도 "항만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노조를 옹호했다.

9시간 15분 만에 끝난 파업. 수백억 루피아 손실 예상

같은 날 오후 6시경, 자카르타주 경찰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바탕으로 한 합의 끝에 JICT 노조의 파업은 9시간 15분만에 끝났다. JICT 노동자 2명의 해고통보는 취소됐으며, 파업 동안 발생한 손실은 수백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루피아화 환율도 주가도 최저가 갱신...BI “아직 양호”

세계적인 언론매체 블룸버그에 의하면 루피아화의 대 미국 달러 환율은 27일 달러당 1만3,462 루피아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연내에 금리인상 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짐과 동시에, 달러화 강세가 루피아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구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현지언론을 통해 “루피아화의 하락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양호한 편”이라며 “인도네시아 통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아구스 총재는 이같은 영향이 국내 시장에서 직접적인 루피아화 판매를 자극하지 않고,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화의 영향만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IHSG)는 전일 증가 대비 1.76% 하락한 4,771.285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전 주말 대비 8% 이상 하락한 것의 영향을 받은 많은 아시아계 주식이 하락했다.

IHSG는 올해 4월에 역대 최고치인 5,500대를 넘은 후 약 14% 하락했다.

아구스 총재는 휘청이는 중국경제가 인도네시아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중국발 경제 위기가 자칫 세계경제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빨라우 스리부 관광객들 옷 단정하게 입어달라”

인기 관광지인 빨라우 스리부(Pulau seribu) 관계자가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옷을 ‘단정하게’ 입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빨라우 스리부의 관광문화부의 이르팔 구찌 부장은 본 관광지에 방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섬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적절한 옷을 입도록 권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섬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이 너무 심한 옷 등은 자제해 달라고 계속해서 권면할 의사를 밝혔다.

아르팔 부장은 “섬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에서는 단정한 옷을 입어달라. 그러나 해변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는 비치웨어를 입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위 소식을 접한 월로씨는 “문화적 관용이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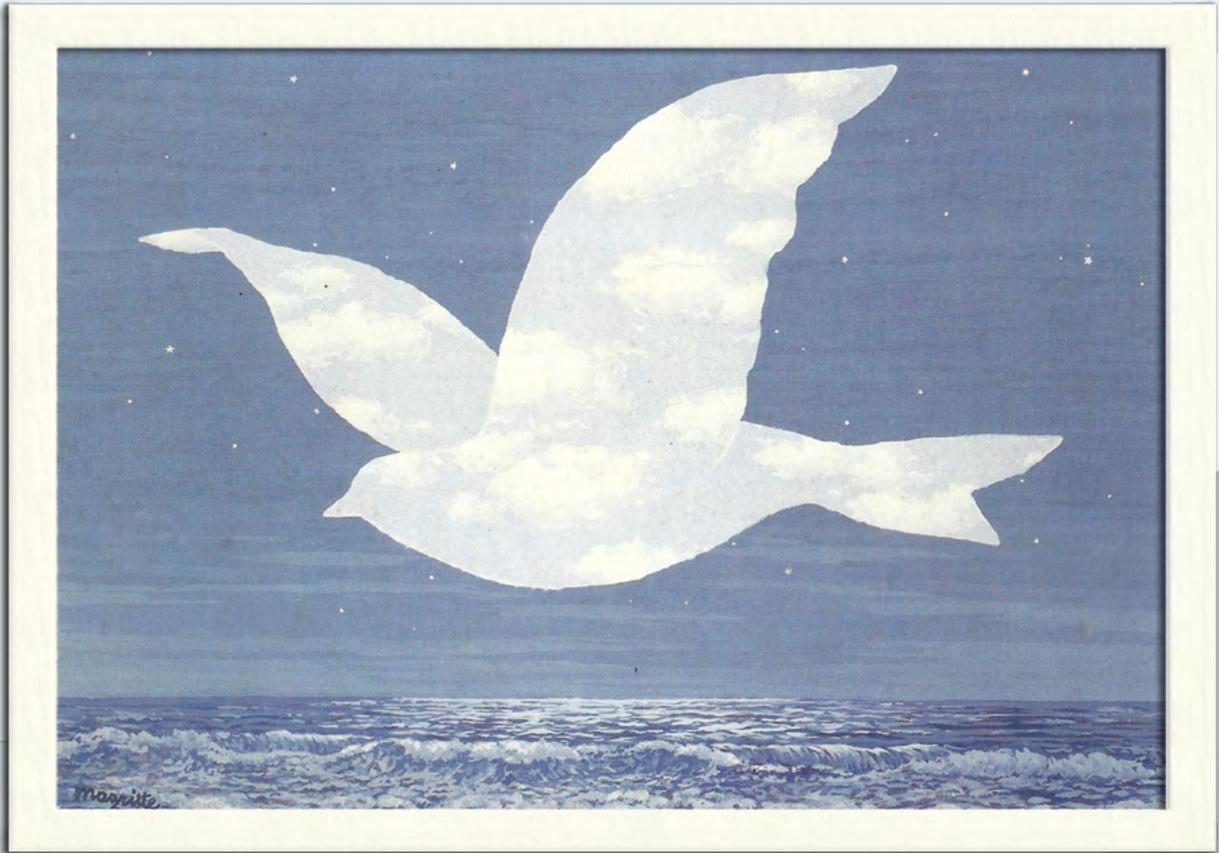


것 같다. 관광객들의 속살을 보고 섬 주민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파울로씨는 “수입 주류에 150% 관세를 매기더니 또 이제 옷 입는 것을 갖고 오지랴이다” 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르네 마그리트, 〈회귀〉



작가 : 르네 마그리트 (Rene Magritte, 1898~1967)

작품 : 회귀 (Regression) 1950, 종이에 과슈,
29.5x41.9cm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8월은 오르던 길을 멈추고 한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는 달이라고..... 시인 오세영은 노래했다.

돌아갈 곳을 생각해보는 8월에 만난 이 그림 “회귀”

벨기에의 국보급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단순하지만 난해한 작품을 보면서 의외로 지금의 내 모습이 쉽게 오버랩 되었다.

시차를 가늠하기 어려운 배경에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날고 있는 저 비둘기가 보잉747 여객기로 보이다가 내 모습으로 또 다른 이들의 모습으로 보인다. 미망의 구름이 있는 푸른 하늘을 품고 어디론가 회귀하는 커다란 새. 인니로 돌아오는 길인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인지..... 30년이 다 되가는 이들에겐 회귀할 길이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낮의 하늘을 품은 새는 상수(常數)인 우리 자신이고 인니와 한국은 두 개의 변수(變數)일테지.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우리의 회귀곡선은 어떤 모양일까.

초현실주의의 대가 마그리트는 ‘화가’ 보다는 ‘사유하는 사람’ 으로 불리고 싶어 했다.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꿈과 무의식을 그린 것과 달리 마그리트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에게 그림이란 사유를 가시(可視)화하는 수단이었다.

사과, 새, 물고기, 신사, 집, 테이블, 나무, 하늘, 바다, 파이프..... 그는 매우 친숙한 소재들을 그린다.

첫눈에 대상들이 쉽게 들어오지만 곧 매우 낯설고 시적(詩的) 이미지로 느껴지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데페이즈망이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물들을 엉뚱한 배경에 놓는 방식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모순 대립되는 요소들을 한 화면에 그리고, 사물의 크기를 상식적이지 않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키고, 두 사물을 하나의 이미지로 중첩 시키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한다.

이처럼 그의 그림은 ‘보는 그림’ 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림’ 이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는 낯선 경험으로 이끌어준다.

<회귀>는 헤겔과 니체와 들뢰즈의 철학을 버무려놓은 그림이다.

바다는 분명 해가 뜬 아침인데 하늘은 별이 빛나는 밤이다. 그의 다른 작품 <빛의 제국>에서와 같이 매우 자연스럽게 낮과 밤을 동시에 보여준다.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동시에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헤겔의 정반합(正反合) 이론을 시각화했다. 미망의 구름이 있는 낮을 품은 새의 둔탁한 비상은 제목 그대로 그 시대 유럽을 풍미했던 니체와 들뢰즈의 철학, 반복되는 ‘회귀’ 이다. 바람과 구름, 하늘과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늘 반복되고 회귀한다. 그래서 늘 그의 그림의 배경은 하늘과 바다와 산과 같은 거시적 풍경들이다.

8월엔 늘 움직이면서 반복되는 거시적 풍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어떤 회귀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돌아갈 길은 어딘지 생각해 볼 일이다.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여행이 주는 선물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야! 여행의 계절이다.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다보니 계절이란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서 느끼면 그것이 곧 계절이 되는 것 같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 인니에 살면서 해마다 주어지는 라마단의 긴 휴일이 언제부터가 우리 한인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편안하게 감성을 쫓아 여행을 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 되어버렸다. 마치 길게 늘어져있는 수양버들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나는 사람들이 흔히 물어보는 취미 중에서 여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어쩌면 움직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도 한 몫 하겠지만 아마도 잘 정돈되어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사색하고 글쓰기를 즐겨했던 내 성향 탓도 있었다. 아주 오래전 대학시절의 기억이지만 사찰에 관심

이 많았던 그 때 여름방학이면 혼자서 유서 깊고 역사적인 사찰을 돌아보는 것이 유일한 나만의 여행경험이다.

그 후로 결혼을 하고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비전 학습을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을 많이 돌아다녔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살게 되면서 이미 고국의 문물을 떠나와 있던 환경적인 영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며 찰나의 순간이 주는 감동을 맛보게 되고 여행지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글을 쓰면서 삶을 이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여행을 하다보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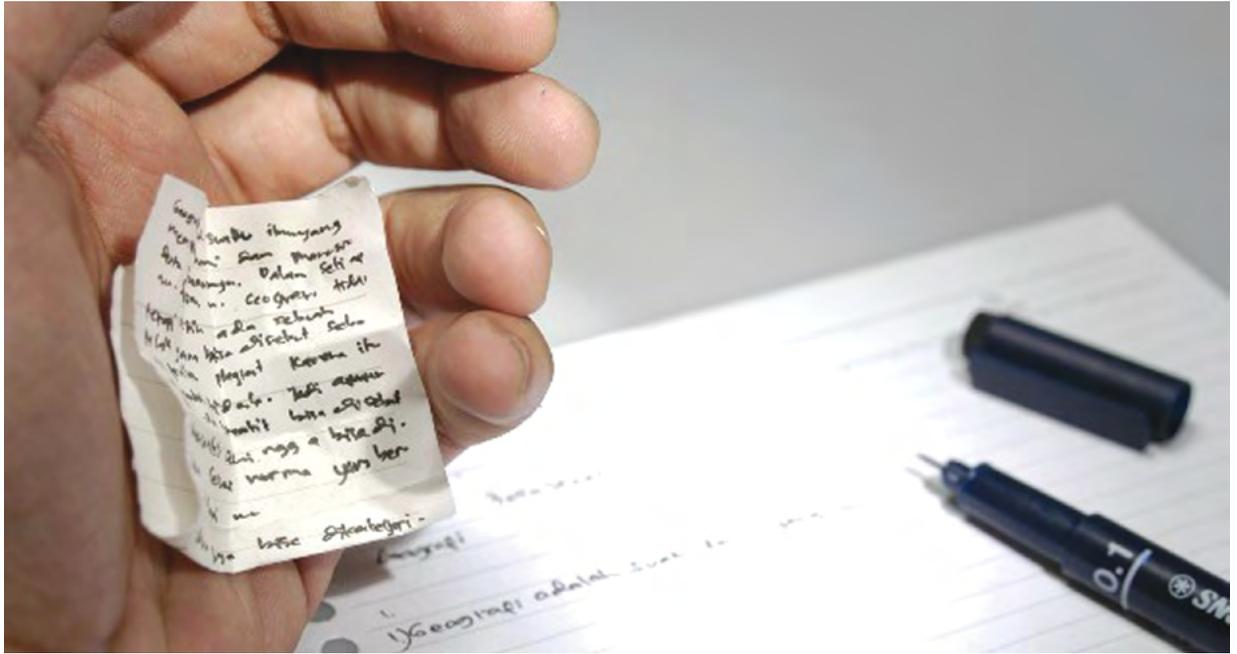
보이는 것만 취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가슴은 금방 허전해질 것이다. 그런 탓일까? 스스로 안으로 깊어지는 풍경을 스위스를 다녀온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의미를 새롭게 헤아릴 수 있음이 참으로 신기하다.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다. 젊음의 한때를 보내며 가슴 조이던 봄날처럼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봄날은 오늘도 지금현재도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무수히 찾아온 봄날은 그리움의 열병을 앓아야만 비로소 느낄 수가 있나보다.

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면 잔잔하게 느끼는 여유로움이다.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과 멋스러운 자연과 열매와 잎들은 너무나 오래도록 잊고 살아온 향기, 옛사랑이 깨어난 듯 벽찬 기운들이 그곳에서 되살아난다.

오늘도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꿈꾸며 여행지에서 사온 와인 한잔을 비스듬히 기울여본다. 새로운 풍경과 색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따뜻한 기운이 번져온다. 계절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삶에서 맛있는 도시와 일상의 궤도가 지루하다고 느낄 때면 언제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이곳에도 가벼운 배낭을 메고 떠날 수 있는 여행지는 무궁무진하다. 수마트라의 또바 호수도 좋고 발리의 절벽사원도 좋으리라. 청아한 음률사이로 호수와 하얀 산과 낮선 관광객들과 만나고 호숫가에는 긴 줄기에 매달려 있는 보라색 이룸 모를 열대의 꽃잎도 보인다.

여행 후에 느끼게 되는 삶의 고독과 상념들은 우리일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인생이란 기나긴 여행이기에...





‘사소한 거짓말’ 혹은 ‘하얀 거짓말’ 모럴 다이어트

한적한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도 슬쩍 무단 횡단한 적 있는가?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쳐 온 적은 없는가? 평소와 달리 아주 가끔 사소한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 또 부인이 새로 장만한 옷을 입고 어 떠냐는 질문에 얼른 ‘응, 아주 멋져, 더 날씬해 보이는데!’ 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거짓말도 부정행위라 할 수 있을까? 착한 사람도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여러분은 지금 한창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자. 근사한 호텔 뷔페 회식자리에서도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나 초콜릿은 애써 외면하면서 평소 별관심도 없었던 샐러드만 한 접시 담아온다. ‘이럴 줄 알았다면 다이어트를 딱 하루만 늦게 시작할걸!’ 하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된다. 모두들 내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 육류며 초콜릿에서 아이스크림까지 살찌기 쉬운 음식만 골라 먹는다. 친한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 하는 말, ‘요 며칠 고기나 초콜릿엔 입도 대지 않았으니 오늘 몇 점 집어 먹고 다이어트 실패하진 않을 거야!’ 한다. 순간 내

머리 속에서도 ‘케이크 한 두 조각 먹는다고 문제될 것 없잖아!’ 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음식들만 잘 먹었으니 아주 조금의 예외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케이크 한 조각이 단지 한 조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비단 이런 심리현상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평소 정직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나름 훌륭한 시민이라 자처하기에 아주 약간의 부정행위는 너그럽게 허용하려고 한다. 비록 그것이 부정행위일지라도 사소하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눈감아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 다이어트 중에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나 회사법인 카드로 가족회식 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 경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하고 도덕적이라 생각한다면 도덕성 척도를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합리화하게 된다. 바로 ‘모럴 다이어트(moral diet)’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칼로리 섭취를 줄이듯 자기합리화를 위해 도덕성까지도 줄이려 한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럴 다이어트 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대체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못한다. 내 강의 중 하나인 전산실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수업 중에 가끔 사적인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다.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 역시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온갖 협박성(?) 언사를 통해 학점을 올리려고 한다. ‘교수님 과목만 B0에서 B+로 올려 주시면 장학금을 탈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들 말이다. 정작 다음 학기 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 일반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백화점이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한다. 딱히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실제 구입해보니 생각보다 맘에 안 드는 경우라기보다는 더 싼 제품을 찾았기 때문일 거다. 제품을 입어본 후 더 싼 쇼핑몰이나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다. 그뿐인가! 직장인 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쯤은 회사 사무용품을 개인용으로 집에 가져와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준 경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연필 몇 자루, 지우개 한두 개, 칼 하나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소량을 말이다. 거래처 간다면서 지하철로 이동한 후 회사에 와서는 택시비를 결제 받는 경우도 모럴 다이어트 사례다.

왜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까?

경제적인 인간인 우리들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들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다면,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온갖 사소한 부정행위 역시 이성적인 관점에서 저질러진다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사소한 부정행위들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성적 판단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교차로에서 불법유턴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있다. 이렇게 잠깐 눈감고 불법 유턴하면 최소한 다음 교차로까지 가는 시간과 수고로움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운전자는 불법유턴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이득과 혹시나 모를 경찰관의 단속으로 범칙금을 물게 될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할 것이다. 당연히 불법유턴 할 때는 범칙금보다는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약속시간에 늦지 않는 이득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평소에 사소한 부정행위나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게리 베커(Gary S. Becker)다.

베커는 인간행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인간은 매우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라고 전제한 뒤, 인간의 부정행위와 같은 범죄를 ‘불확실성하의 합리적 선택’으로 파악하였다. 즉 인간은 부정행위로부터 기대되는 이득과 기대되는 손실을 비교하여 이득이 클 때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바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관점이 아닌 행동이 낳은 결과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만을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정직성 혹은 도덕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제품과 관련된 의사결정처럼 오로지 비용편익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의구심이 든다. ‘길거리의 구세군 냄비 속에 익명으로 거액의 돈 다발을 두고 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이런류의 기부행위의 결과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가? 한 철학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10억 명이 경미한 두통을 앓고 있으며, 무고한 1명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1시간



동안 두통을 경험해야 한다. 반대로 그 한 사람을 죽인다면 모두의 두통은 즉시 사라진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한 사람을 죽일 것인가?’ 경제학자가 비용편익분석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일 것이다. 왜? 사람들은 10억분의 1의 확률로 죽는 것보다는 당장의 두통을 더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작 게리 베커의 비용편익분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적 동기보다 심리적 동기가 부정행위를 이끈다! [상식 밖의 경제학]의 저자인 댄 에리얼리(Dan Ariely)는 그 동료들과 함께 매우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일명 ‘매트릭스 문제’라 명명된 20개의 간단한 문제를 풀도록 한 뒤 정답을 스스로 확인한 후 과제기에 넣어 문제지를 없앤 후 본인의 정답 개수를 적어내라고 했다. 충분히 부정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을 준 것이다. 정상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정답을 확인한 집단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 정답의 개수를 평균보다 2개 정도 더 부풀렸다. 아주 사소하게 두 문제 정도의 범위 내에서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도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더 나아가 부정행위 정도는 정답의 개수만큼 돈을 차등 지불할 때조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지불하는 돈의 금액을 증

가시켜도 정직한 집단에 비해 사소할 정도의 정답 부풀리기에 그쳤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동기로 인해서 사소한 부정행위를 촉발시킨단 말인가?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정직하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인물로 보이길 원하는 자아 동기부여(ego motivation)와 함께 타인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금전적 동기부여(financial motivation)를 함께 가슴에 품고 있다. 이 두 가지 동기부여 요인은 명백히 모순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득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존경 받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가진다. 이 때 적어도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존경이라는 이득까지 챙길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유연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케이크를 먹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케이크를 보관하려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의 케이크 조각을 뜯어 먹는 것이다. 또 금연을 작심한 후 며칠 못가서 담배에 손이 갈 때, ‘딱 한번만’ 피우자는 심리적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처럼 비용편익분석 차원의 경제적 혹은 금전적 동기만이 아니라 자아 혹은 도덕적 동기 역시 인간행동을 조정하며, 댄 에리얼리는 이를 ‘퍼지요인(fudge factor)’이라 칭하고 있다. 그는 “이기적 욕망을 합리화하는 능력이 커질 때 퍼지요인도 함께 커져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행위를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인지적 유연성을 가져오도록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경제적 동기인 이득 못지않게 심리적 즉 도덕적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더 나아가 금전적 동기보다 오히려 도덕적 동기에 의해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 바로 좌뇌에 그 답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가(Michael Gazzaniga) 교수에 따르면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대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역할을 ‘좌뇌’가하기 때문이란단.



이를 확인해주는 실험이 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단절된 환자에게 우뇌를 통해 ‘웃음’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자 웃기 시작하지만, 정작 왜 웃는지 그 이유를 물을 경우 알지 못한다. 이때 좌뇌는 자신이 웃었다는 사실을 통해 뒤늦게 웃은 이유를 그럴듯하게 지어내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하지만 정말 거짓말하는 뇌는 따로 있다고 한다. 미국 UCLA의 야링 양(Yaling Yang) 박사와 그 동료들에 따르면, 하루 일과를 계획하거나 유혹에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고차원적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병적인 거짓말쟁이의 전두엽은 정상적으로 도덕성이 높은 사람의 전두엽보다 백질이 22~26퍼센트나 더 많았다. 반면 회백질은 정상인에 비해 14.2퍼센트가 적었다. 전두엽의 백질은 서로 다른 기억들과 생각들 사이의 연결성 및 연상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회백질은 기억을 저장하는 뇌세포를 말한다. 결국 거짓말쟁이는 머릿속의 서로 다른 기억들을 더 쉽고 다양하게 조작해 낼 수 있는

정답: 1. 100분이 아니라 5분이다.
 2. 1,000원이 아니라 500원이다.
 3. 24일이 아니라 47일이다.

능력이 뛰어나단 얘기다.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이나 부정행위를 한 후,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하면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직함이 더 높으며,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게 할 수 있다. 이 때 지능은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한다. 이를 두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기꾼(?)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창의성의 대가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종종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말하곤 했다. 1965년 포크록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통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밥 딜런(Bob Dylan)의 ‘라이크 어 롤링 스톤(like a rolling stone)’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생소하면서도 참신한가!! 재미삼아 예일대학의 셰인 프레더릭(Shane Frederick) 교수가 설계한 인지반응 테스트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어보시라! 당신은 창의적인 사람인가?

1. 5분 동안 5개의 부품을 만드는 데 5대의 기계가 필요하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부품을 만드는데 몇 분이 걸릴까?
2. 야구 글러브와 야구공을 각각 한 개씩 사니 11,000원이 들었다. 야구 글러브는 야구공보다 10,000원이 비싸다고 한다. 야구공 1개의 가격은 얼마인가?
3. 연못에 커다란 수련 잎들이 떠 있다. 이 수련 잎들의 너비는 날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 수련 잎들이 전체 연못을 덮는데 48일 걸린다면 연못의 절반을 덮는데 며칠이 걸릴까?

(다음호에 계속)

<<글: 범상규(건국대 교수)

제 35회 열린강좌

바틱이야기

- 자바의 영혼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신으로

일시: 8월 8일(토) 10:00 - 12:00

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지혁 박사

제 36회 열린강좌

바타비아의 역사를 간직한 꼬따뚜아 이야기

- 역사, 외양, 미술 박물관 / 파타힐라 광장

일시: 8월 22일(토) 10:00-12:00

강사: 사공 경 원장

<35회-36회 열린강좌 공통사항>

참가비: 5만루피아(비회원 10만루피아) 정원: 25명 이내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

신청: 정윤희 수석팀장 081519010570(SMS 신청)

08161909976(카톡ID:love520813), lovekoin@hotmail.com

문의: 021) 2966-0825

한*인니문화연구원 Jl. Gatot Subroto Kav.58 한인회문화회관 1층
(disebelah Korean Embassy, sebelum rumah sakit Medistra)

제 281회 문화탐방

꼬따뚜아(Kota Tua) 이야기

- 역사, 외양, 미술 박물관 / 파타힐라 광장

일시: 9월 5일(토)

진행: 최우호 팀장

회비: 25만루피아 (비회원30만루피아) 정원: 10명 이내

신청 : 채인숙 부원장 081584797879

일정 : 8:50 카페바타비아 1층 집결

9:00 - 10:15 역사, 외양, 미술 박물관 둘러보기

10:30 - 12:00 카페 바타비아에서 수업

12:00 - 13:00 점심식사 및 티타임

13:00 - 14:30 심화수업 (희망자에 한해서 박물관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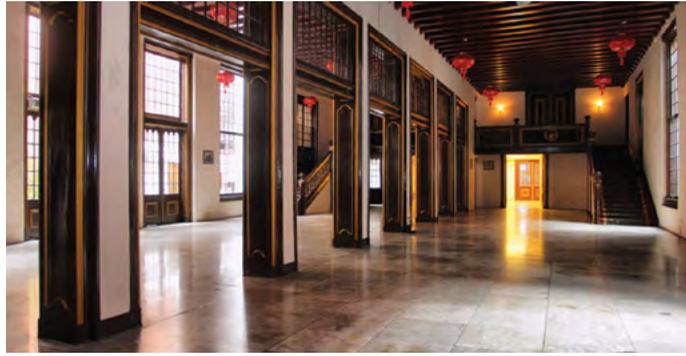
빨간 상점 (Toko Merah)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깔리 브사르(Jalan Kali Besar) 강가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은데 1700년대 초 이곳은 상류층의 거주지역이었다. 옛 바타비아에 건축된 마지막 남은 두 채의 귀족가옥(Toko merah)이 1600년대 지어진 운하, 도개교와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하다. Toko Merah는 붉은 벽돌로 만들어졌고 붉게 칠해진 실내장식과 빨간 가구들로 인해 ‘빨간 상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남아있는 가구들은 현재 자카르타 역사박물관(구 시청)에 전시되어 있다.

Toko Merah는 한 지붕 아래에 두 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No.4(남쪽)는 1700년대 초 지어졌고 동양의 첫 해양아카데미로 운영되었으나 인도네시아인들은 사용하지 못했다. No.11 (북쪽)은 1730년에 Baron van Imhoff가 건축하였으며 비

용이 모자라 장모의 도움을 받았다. 그 뒤, 그의 삼촌인 총독Adriaan Valckenier 가 ‘중국인 실업자들을 스리랑카로 보낸다’ 고 선언하자, 1740년 10월 중국인 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총독 Valckenier가 중국인 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고 VOC위원회가 그를 문책하자 그는 Imhoff을 모함했다. 그로인해 Imhoff는 Toko Merah를 팔고 네덜란드로 떠나야했다. 부서지는 빨간색을 안고, 그전에도 VOC의 업무로 스리랑카로 떠날때도 Toko merah에 쌓인 추억으로 가슴 쓸어안았던 그였다. 무죄선고를 받고 나서 총독(1743-1750)이 되자, 곧 사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Toko merah를 매입한다. (No.11(북쪽)) 1750년 Imhoff 총독이 세상을 떠나 현재 와양 박물관에 묻혀 있지만 그에게 Toko merah 는 아픈 그리움이다. 같은 해 남쪽 집을 소유한 Hugo Verijssel도 세상을 떠



났지만 미망인(Sophia Westpalm)이 1760년까지 그 곳에 살았다. 그 후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대부분 바타비아 귀족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다. 즉 van der Parra(1761년-1775년), de Klerck(1777년-1780년), Nicolaas Hartingh, von Hohendorff 등 총독들이 이 건물에 살았다.

1786년-1808년 두 건물을 합쳐서 공무원들의 숙소인 Heerenlogement 호텔로 운영했다가 1809년-1813년 Anthony Nacare가 주택으로 사용한다. 1813년-1851년 동안 또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다가 1851년 중국인 Oey Liauw Kong가 매입하여 상점으로 운영하였다. 1910년-1925년voor Indie 은행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1920년 Bouwmaatschapij 주식회사가 건물 복원을 했다. 1925년-1934년 무역회사로, 1934년-1942년에는 네덜란드의 5대 회사에 속하는 주식회사 van den Berg의 무역본사로 운영되었다. 1942년-1945년 일본군인 보건청으로, 1945년-1946년 영국+인도의 군인 베이스캠프로,,1946년에는 수출 무역국으로, 그 후, 2003년

까지 여러종류의 주식 회사로 운영되었다. 1940년에 보수공사가 있었다. 2012년 9월 6일 Toko Merah 공식적으로 재 공개했고 컨벤션 홀, 사진·영화촬영 장소로도 사용된다. 마침내 No.11(북쪽)은 옛 커피점 (Kopitiam Doeloe)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독 Imhoff. 바타비아와 보고르를 발전을 시켰고 중국인 학살을 반대했으며 Toko merah가 가슴 밑바닥까지 에이는 풍경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가 Kopitiam에서 커피를 마신다. 시간의 함수 속에 기억과 망각의 변주곡을 쌓아 올리리라.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역사만큼이나 두터워진 빨간색을 위해. 오늘도 그는 Toko merah에서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고 있을까. 그는 너무 멀리 떠나와 버린 것일까. 시간의 칼날 속에서도 빨간색은 더욱 빛나는데...

Jalan Kali Besar Barat
(No.4 dan No.11)
Sunda Kelapa
Jakarta Utara





“한-인도네시아, 광복 70주년 맞아 함께 걸어요”

밤방 수르요노 인화일보 편집장 “평화헌법 개정은 군국주의 부활”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올 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35년과 3년간 일제강점기에 국권 침탈,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 자원 수탈 등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1945년 8월에 독립을 맞이했다. 이후 양국은 가해국인 일본과 반목과 협력을 반복하며 수십 년을 보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인은 일제에 대한 반감이 우리처럼 커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이 패색이 짙어지자 태도를 바꿔서 표면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도록 지원한 것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식민지배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본토와 떨어져 있어서 한국만큼 혹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수년 사이에 일제 만행을 재조명하고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다. 밤방 수르요노(78) 인도네시아 인화일보(印華日報) 편집국장은 지난 6월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보낸 동남아시아 학자들의 공개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동남아시아 학자들은 이 서한에서 총리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말살하는 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3개 국의 대학과 학술 단체의 역사·문화 학자와 언론인 등 20명이 서명한 공개서한에 따르면,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3개 국을 1942

년부터 3년간 강점하면서 12만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주민을 학살했다. 수많은 남성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어린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만 수천 명 이상이 위안부로 끌려갔다.

밤방 국장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어린 시절에 일본군의 침략과 만행을 실제로 목격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제 강점기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 펴내는 등 일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50여 년을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역사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 이를 제대로 보존해야 한다” 며 “일본 정부는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독일로부터 배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며, 다시는 일본의 침략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밤방 국장은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할 것” 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또 일제 강점기 역사에 관한 세미나를 정례화하는 한편, 조만간 일제 침략 관련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일제 강점기에 서부 깔리만탄주에서 수천 명의 무고한 주민이 학살 당한 사건과 관련해 주정부가 매년 6월 28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

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한일 양국간의 외교적 갈등은 그 어느 때 보다 쾅쾅 일어 붙었다.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참의원 선거(2013년 7월), 중의원 선거(2014년 12월)를 포함한 전국 단위 선거 ‘불패’ 의 기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보수 우익적 행보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 고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했다. 지난 2010년에는 4개 출판사 10종 가운데 1종만이 이같이 서술했지만 2014년에는 4개 출판사 8종 가운데 6종(75%)으로 늘어났다. 향후 잘못된 교육을 받은 일본 학생들이 보수 세력에 표를 던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밤방 국장은 일본 보수 우익들이 1930~1940년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일본제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 실현을 다시 꿈꾸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서 인상 깊었던 일 중 하나가 성대한 독립기념일 행사다. 독립에 대한 기쁨을 마을이나 직장 단위로 축하하면서 일체감을 지향한다. 최근 3~4년간 라마단과 이슬피트리가 독립기념일과 비슷한 시기에 도래하면서 위축된 느낌이 있었지만 올해는 독립기념일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인들과 축하행사를 같이 한다. 한국 광복절 8월 15일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8월 17일 중간인 16일(일) 아침에 자카르타 중심가 수디르만 거리를 태극기와 적백기를 흔들며 함께 걷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연대해 만들어갈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걸음을 시작해보자.



제 31차 헤리티지 즈빠라 스마랑 탐방

일시: 2015년 8월 26일(수)~28일(금) 2박 3일
즈빠라 스마랑의 아름다운 문화를 감상할 좋은 시간입니다. 즈빠라에서 목각 작업을 하고 계신 박조유님의 작품 제작과정을 자세히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 가구 공장 방문하셔서 가구도 볼 수 있어요!

회비: 추후 공지

신청접수: irenesujin@hotmail.com 헤리티지 밴드 대글로 신청 가능

“명강사 김운석” 초청 토크쇼

제목: 당김의 법칙- 시크릿
여성 리더쉽과 사회적 역할
자녀 교육의 아이러니

한국에서 활동하는 명강사로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 확 푸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10시~12시
장소: 헤리티지 도서관(플라자 스나얀 센트랄 스나얀 17층)
신청 접수: irenesujin@hotmail.com
Pagi 앱/ 헤리티지 밴드 통해 접수 가능(성함및 연락처 기입)

<<2015년 명사 초청 강연회>>

“ 인도네시아 거석문화와 가종수 ”

가종수 교수 초청 강연회

제목: 인도네시아의 거석문화 Megalithic Culture of Indonesia
후원: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한국문화원
일시: 2015년 9월 19일(토) 10시 ~ 12시
장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한국문화원(에퀴티 타워 17층)
English Lecture: 2015년 9월 18일(금) 10시~12시(외국인 대상)
장소: 헤리티지 도서관

인도네시아 문화 관련 책을 6권 이상 집필하신 가종수 교수님을 아십니까? 일본의 슈지츠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자랑스런 한국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청접수: Pagi 앱/ 헤리티지 밴드 댓글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안 섹션

회장 이수진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

R. J. 팔라시오 글/천미나 역 | 책과콩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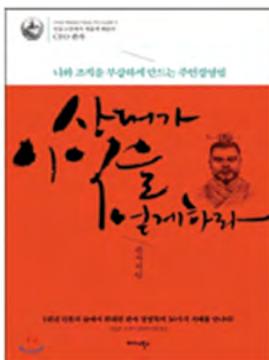
『아름다운 아이』에서 선천적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어거스트를 앞장서 괴롭히던 줄리안. 무엇이 그를 못된 아이로 만들었을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넘어서 친절을 선택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진정한 아름다운 아이로 거듭나는 줄리안의 이야기.



시를 읽은 그대에게

정재찬 저 | 휴머니스트

“눈물이 고일 정도로 감동받고, 소름 끼칠 정도로 감탄했다!” 공대생들마저 사로잡아 버린 오감만족 시 강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불후의 명시들을 요즘 우리의 감성으로 소개한다. 오래만에 가슴이 촉촉히 젖어오는 감격적인 시 읽기.



상대가 이익을 얻게 하라, 관자처럼

신동준 저 | 미다스북스(리틀미다스)

춘추 시대 약소국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재상 관중. 그는 누구나 잘살게 함으로써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 실용주의적 부국강병 사상가이자 법치주의자였다. 작금의 경제, 정치 문제에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줄 관자의 경영법에 다시 주목해 보자.



국립박물관 한국어 투어를 다녀와서



알차고 재미난 국립 박물관 한국어 무료 투어

제대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한 가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국어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상 : 박물관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신청 가능
선착순 25명

장소...Jl.Merdeka Barat No 12 Museum Gajah
(코끼리 박물관)
모나스 광장 근처

일시...2015년 8월 15일 셋째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전후

인도웹과 Pagi 앱에 댓글을 달아 신청해주세요
헤리티지 밴드에서도 신청받습니다!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안 섹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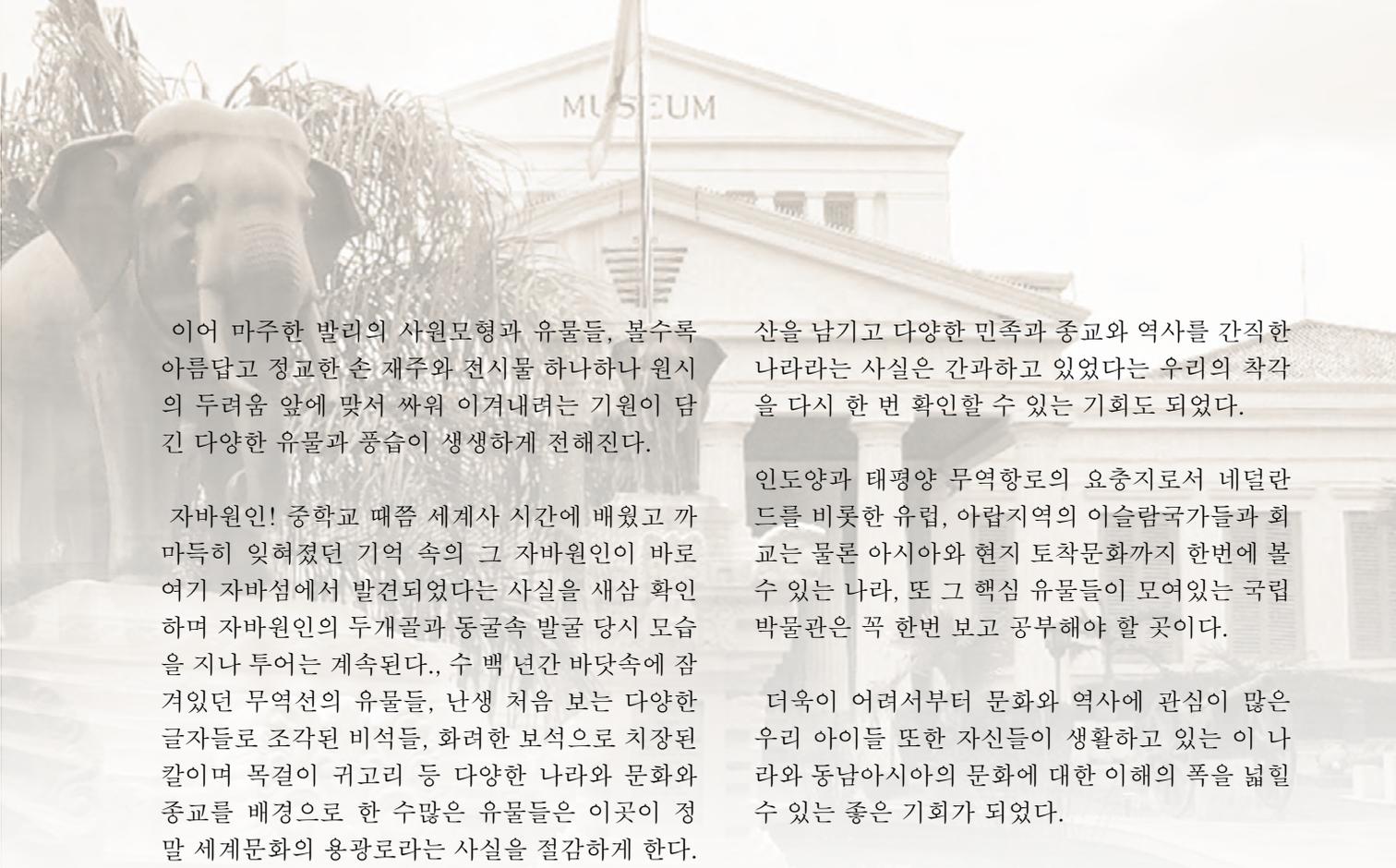
글: 이우철

자카르타 생활을 시작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인도네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 할 만한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반성과 함께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한국어 투어를 선택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외국인 단체관광객 들이 버스에서 줄줄이 내리고, 우리도 약간의 설레임을 안고서 입장.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박물관을 통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이다. 선사시대유물부터 근현대 유물까지 실물을 눈앞에 마주하면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말 생생한 경험을 하게된다. 그것도 한국어로 된 안내가 가능하다니 고마운 일이다.

가로 5000km의 엄청난 규모의 국토와 17,000개가 넘는 섬, 2억 4천만 세계4위의 인구, 370여 민족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개요를 들으면서 지역별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각 부족의 얼굴로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지도를 보면서 우리의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투어는 시작되었다.

박물관 1층 입구 첫 전시물은 시 갈레갈레(SI-GALE GALE) 아들 없이 죽은 남자는 죽어서도 낮은 신분의 위치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믿음에 미망인이 나무인형으로 아들을 만들어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고 기린다는 설명을 들으며 애뜻한 여인의 사부곡이 들리는 듯했다.



이어 마주한 발리의 사원모형과 유물들, 볼수록 아름답고 정교한 손 재주와 전시물 하나하나 원시의 두려움 앞에 맞서 싸워 이겨내려는 기원이 담긴 다양한 유물과 풍습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자바원인! 중학교 때쯤 세계사 시간에 배웠고 까마득히 잊혀졌던 기억 속의 그 자바원인이 바로 여기 자바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며 자바원인의 두개골과 동굴속 발굴 당시 모습을 지나 투어는 계속된다., 수 백 년간 바닷속에 잠겨있던 무역선의 유물들, 난생 처음 보는 다양한 글자들로 조각된 비석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칼이며 목걸이 귀고리 등 다양한 나라와 문화와 종교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유물들은 이곳이 정말 세계문화의 용광로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한다.

300여년 오랜기간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만 부각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수 천년 동안 현재의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엄청난 문화유

산을 남기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와 역사를 간직한 나라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우리의 착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인도양과 태평양 무역항로의 요충지로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아랍지역의 이슬람국가들과 회교는 물론 아시아와 현지 토착문화까지 한번에 볼 수 있는 나라, 또 그 핵심 유물들이 모여있는 국립 박물관은 꼭 한번 보고 공부해야 할 곳이다.

더욱이 어려서부터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 또한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나라와 동남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말로 듣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내용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해주신 이수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 번 경험해보시길 적극 추천한다.



박조유 우드워킹 조각 초청전시회

일시: 2015년 9월 5일(토) ~ 20일(일)

장소: 롯데 쇼핑 에비뉴 메인 아트리움

전시회 개막식 : 2015년 9월 5일(토) 5시

나무를 가장 나무답게 하는 조각가 박조유 초청 전시회를 자카르타에서 개최합니다.

인도네시아 고목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롯데백화점에서 개최하는 박조유 조각가 우드워킹 초청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인 섹션

후원 :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 문예총

한인니 문화연구원

롯데 쇼핑 에비뉴



마지막 범선 부기스 종족(Suku Bugis) 그리고 토라자 커피(Kopi Toraja)와 마카사르(Makassar)

최문정(연구원팀장/디자인트레블 대표)

남 술라웨시를 대표하는 마카사르, 부기스 종족은 고와(Gowa) 문명에서 출발한다. 15세기에 건설된 술라웨시의 고와 왕국은 2세기 동안 술라웨시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17세기 카라잉파팅알로 왕의 통치 시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무역을 하며 강대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마카사르는 16~17세기 동안 고아 왕국 항구 및 국제 무역 중심지로 번성하게 된다. 주요 무역품은 세라믹, 면, 목재, 향신료 등을 수출하며 부강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으나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왕국 또한 전쟁으로 참패를 면치 못하며 쇠퇴하게 된다. 고와왕국의 패전으로 이곳의 지배층이었던 부기스 종족은 말레이 열도와 싱가포르, 파푸아 등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거대한 범선을 타고 세계 곳곳의 바다를 누비며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부기스 종족, 마카사르는 그들의 터전이었고 토라자 커피는 그들의 중요한 무역품이었다.

또라자 커피 (Kopi Toraja)

커피는 16세기 즈음에 아랍상인들이 술라웨시에 처음 소개하였다고 한다. 이는 이미 1500년대부터 마카사르는 중요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1652년 London coffee가 아시아에 소개된 이후로, coffee 무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동인도 회사가 1658년 Ceylon인 지금의 스리랑카에서 커피무역을 시작함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커피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이차적으로 18세기에 다시 붐이 일어났다. 1830년 마카사르 무역항을 통해 술라웨시에 커피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의 Gowa 왕국 시절부터 조금씩 커피 재배가 시작 되었으나 생산량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부기스 족의 주요 무역품이었던 또라자 커피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이다. 네덜란드가 부기스 족이 사는 따나 또라자의 남부 저지대에서 큰 규모로 커피를 재배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또라자 사람들은 물보다 커피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 손님에게 커피를 청하는 것이 예의이자 인사라고 한다. 하루를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며 시작 한다고 하니 굉장히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또라자의 아라비카는 현재 자메이카 커피를 뒤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인도회사를 통



해 수출이 되었던 커피는 종전 이후 약 20년간 주춤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의 커피 산업은 일본의 투자로 활력을 되찾게 된다. 북부 따나 또라자의 고지대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인이 함께 만든 벤처회사 PT. Toarco가 일본 마켓에만 독점적으로 커피를 공급하고 있다. 술라웨시 섬 중앙 산악 지역의 적도에 위치한 커피 농장은 해발 1500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커피를 생산하는 최상의 고도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고급 커피로 알려진 또라자 커피는 목직향 바디와 진한 초콜릿 향이 가미되어 아라비카 커피의 걸작으로 평가되며, 고급 커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품질관리에 노력도 많이 하여 직경 7.5mm 에서 6.8mm 사이의 녹색콩만 사용하여 최상급의 또라자 커피를 생산해 내고 있다.

부기스 종족(Suku Bugis)

부기스 족들은 마카사르 족과 함께 마카사르를 술라웨시 남부 지역의 Gowa 왕국의 관리 직원 및 상인 이었던 종족으로 술라웨시 전역에 분포되어 살아왔었다. Gowa 왕국 당시 300만 명 이상이었던 기록이 남아있고, 말라유를 사용하며 문화유산을 많이 가진 문명화된 부족으로 평가된다. 그들은 해상 종족임에도 유목종족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위계 구조가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비슷하고 인도의 문학양식도 받아들이는 등 인도의 문명을 많이 가지고도 있으나, 100명 정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유목 종족으로의 특징도 나타난다. 일찍이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으나, 17세기에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부기스 족들은 모험심과 해양술이 뛰어나며 선원 또는 상인으로 활동하였고, 일부는 해적이 되기도 했다. 이들의 주요 거점지인 마카사르는 활발한 상업 활동으로 교역 항구로 번성했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전투를 벌였고, 마카사르가 네델란드에 정복당하자, 술라웨시를 떠나 말레이 열도로 이주했다.

그들은 큰 돛을 가진 범선으로 잘 계획된 항로로 여행하며 향신료 무역상들에게 유명했다. 설계도 없이 돛도 사용하지 않고 배를 만들고 항해도 없이 별을 보며 달을 보며 항해한다. 그들이 만든 배를 빠니시(Pinishi)(길이 20~30m, 폭 5~6미터, 무게 30~200톤, 돛 7개)라고 하는데 지금도 순다플라빠 항구에 밝은 색으로 물들여져 줄지어 정박해 있어 그들의 조선 능력과 항해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다. 2개의 직사각형의 돛대 위에 각 삼각형의 돛대가 달려있다. 그리고 뱃머리에 3개의 삼각형의 보조 돛이 있다. 과학적인 7개의 돛의 모양을 보면 빠니시가 얼마나 빠르게 운항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빠니시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항해할 수 있는 범선으로, 찬란했던 남술라웨시의 고아문명의 역사를

말해준다. 200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600만 명의 많은 부기스 족은 동남 술라웨시, 중앙 술라웨시, 파푸아, 자카르타, 동부 칼리만탄 등 여러 지방에 퍼져있다. 말레이시아 반도, 싱가포르 등지에도 살고 있다. 그들은 영원한 항해자로 기록된다.

마카사르 Makassar

마카사르(Makassar)는 술라웨시 섬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동인도네시아의 중심항구가 된다. 수도인 마카사르는 인도네시아의 동쪽 관문이었고 향신료 무역으로 유명했다. 실크, 사롱, 금·은 세공품, 향신료, 매운 해산물 구이로 유명하다. 남부 술라웨시 섬 네 개의 주요 인종 그룹 중 가장 큰 그룹이 부기스 족 및 마카사르, 만다리즈(Mandarese) 족은 해안 근처에 거주하며 선원과 상인들의 후손들로서, 바다를 바탕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주요 인종인 토라자(Toraja) 족은 바

다에서 먼 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슬람,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 등 수많은 종교가 존재한다. 한편 마카사르는 1971~1999년까지는 우중빤당 (Ujung Pandang)이라고 불리어졌다. 타 도시로 가기 위한 환승 항구로도 유명한 이곳은 예술을 찾는 방문객들과 그들을 따스하게 환대하는 마카사르 인들로 인해 번성해 왔다.

번평 솨바 오투 요새 Benteng Somba Opu Fortress

포트 노트르담 요새는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카사르 로사리 해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16세기 술탄 하사누딘(Sultan Hasanuddin)과 Gowa 왕국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원래 이름은 somba opu였고, 네덜란드 식민지 후, 이곳의 총독이 살던 도시 노트르담 이름을 빌려와 포트 노트르담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식민지 시절에는 이곳은 향신료 구입 및 무역센터로 이용했었다. 바다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 해일에 의해 침수되기도 한다. 1669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파괴하였고, 1990년대에 다시 복구되었다. 과학자 알프레드 월레스 (alfred Wallace)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어진 요새 중 가장 견고하게 지어진 요새로 평가한 바 있다. 발루와라 아우웅 (Baluwara Aung)이라 불리는 길이 9m, 무게 9,500kg에 이르는 대포도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 있는 박물관에는 Gowa의 역사적인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부기스 족의 범선인 Pinish도 잘 설명해 놓았다.





외국인 인력 고용에 관한 신 노동부장관령(1)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고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3년 제12호를 폐기하고, 2105년 6월 29일 외국인 고용에 관한 신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를 공포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근년에 와서 외국인 고용에 관하여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 고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노동집약 산업이 아닌 비제조업 분야의 외자투자 회사 및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RO)는 신 노동부장관령으로 인하여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신 노동부장관령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1.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사용자(*법인)에게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 제42조), 외국인 인력을 서면 고용허가서 없이 고용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징역 최소 1년 최장 4년 및/혹은 벌금 최저 Rp.1억 최고 Rp.4억의 중형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85조).

2. 외국인 인력 고용계획서 승인 획득 의무 및 고용허가서 획득 의무

2.1.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외국인 인력고용계획서 (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에 대하여 승인을 먼저 받은 후 다시 외국인 인력(Tenaga Kerja Asing/TKA) 개개인 별로 고용허가서 (Ijin Memepekerjakan Tenaga Kerja Asing/IMTA)를 받아야 한다.

2.2. 정부 기관, 국제 기구 및 외국의 대표기구(대사관)은 RPTKA 획득 의무가 없다.

3. 외국인 인력 고용목적에 따라 외국인 인력 분류

외국인 인력을 경영진(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Operation 인력, 비상 인력 및 임시 인력, 연예인 인력, 재단법인(Yayasan)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 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구비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다.

4. 외국인 인력의 구비요건

4.1. 구비 요건

- 4.1.1. 해당 직책에 부합한 학력 증명서
- 4.1.2. 해당 분야 자격증 혹은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 증명서
- 4.1.3. 외국인 인력을 교체할 내국인 근로자에게 기술 이전 의무 이행 약속 및 훈련 이행 보고 약속 각서
- 4.1.4. 6개월 이상 근무 외국인 인력은 납세의무자등록증(NPWP)
- 4.1.5. 인도네시아 법인인 보험회사에 부보한 보험증서
- 4.1.6. 6개월 이상 근무 외국인 인력은 사회보장보험 증서

4.2. 상술한 “제4.1.1항.-제4.1.3항”의 구비요건은 경영진 및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3. 상술한 “제4.1.항”의 구비요건은 비상 외국인 인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4. 상술한 “제4.1.1항.-제4.1.4항 및 4.1.6.항”의 구비요건은 임시 외국인 인력 및 연예인 인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5. 외국인 인력을 교체할 내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인력의 직책에 부합한 분야의 학력 보유자라야 한다.

5. 외국인 인력 1인 당 내국인 최소 10명 고용 의무

5.1. 구 규정에서는 외국인 인력 1명 고용 시 내국인

1명 채용을 의무화 했으나 신 규정에서는 외국인 인력 1명 채용 시 내국인 최소 10명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 10명 채용 의무는 상기 “3항”에 열거한 외국인 인력 중 Operation 인력에게만 해당되며, 경영진, 비상 인력, 임시 인력,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5.2. 연예인 인력 중 외국인 가라오케 인력 고용 시 외국인 가라오케 인력의 최소 5배수로 내국인 인력 채용 의무가 있다.

6.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단체

- 6.1. 정부 기관
- 6.2. 공식 국제 단체
- 6.3. 외국의 대표기구(대사관)
- 6.4. 공식 국제 기구
- 6.5. 외국의 무역대표사무소,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외국통신언론사의 대표사무소
- 6.6. 관계 기관에 등록된 외국 회사 혹은 외국 단체의 대표사무소
- 6.7. 주식회사(PT) 혹은 재단(Yayasna) 형태로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6.8. 사회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및 문화단체
- 6.9. 흥행사업자
- 6.10. 민사계약단체(PP), 합명회사(CV), 개인회사(Fa), 동업회사(UB), 상사 (UD), 협동조합(Koperasi)는 외국인 인력 고용을 금한다. 단 법률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Online 신청

외국인인력고용계획서(RPTKA) 승인 신청을 반드시 Online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처는 중앙정부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이다. 그러나, 특별경제구역(Kawasan Ekonomi Khusus/KEK) 혹은 무역자유지역 및 자유무역항(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KPBPB)에 위치한 사용자는 해당 특별경제구역 혹은 무역자유지역 및 자유무역항에 신청한다.

8. RPTKA 승인 신청 구비요건

- 8.1.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 설명서
- 8.2. 소정 양식 신청서 작성
- 8.3. 관할 부처 발급 사업허가서
- 8.4. 전체 정관 및 법무부 발급 승인서
- 8.5. 회사 조직도
- 8.6. 승인 신청 직책이 관련 부처 추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부처의 추천서
- 8.7. 지방정부 발급 회사 소재 증명서
- 8.8. 외국인 인력 사용자의 납세의무자등록증
- 8.9. 외국인 동반 근무 내국인 근로자 임명장 및 동반 근무 계획
- 8.10. 외국인 동반 근무 내국인 근로자 훈련 이행 약속 각서
- 8.11. 지방 노동국에 회사 인력 등록 확인서

9. 소정 RPTKA 승인신청서 기재 내용

- 9.1. 외국인 인력 고용자 이름
- 9.2. 고용자 주소
- 9.3. 고용자의 대표 성명
- 9.4. 외국인 인력의 직책
- 9.5. 직책 설명서
- 9.6. 외국인 인력 인원
- 9.7. 외국인 인력 근무 장소
- 9.8. 고용 기간
- 9.9. 외국인 인력의 급여액
- 9.10. 고용 개시일

9.11. 내국인 인력 채용 인원 및 추가 일자리 발생 가능성

9.12. 외국인 동반 근무 내국인 근로자 임명

9.13. 내국인 근로자 훈련 계획

10. RPTKA 승인

10.1.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 완비 시 3근무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한다.

10.2. 외국인 인력 50명 이상 RPTKA는 담당 청장의 전결이며, 50명 이하는 담당 국장의 전결이다.

10.3. RPTKA 승인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0.3.1. 외국인 인력 고용 이유

10.3.2. 외국인 인력의 직책

10.3.3. 외국인 인력의 근무지

10.3.4. 외국인 인력의 급여액

10.3.5. 외국인 인력의 인원

10.3.6. 고용 기간

10.3.7. 동반 근무 내국인 근로자의 인원

10.3.8. 채용 내국인 인원

10.3.9. 상기 “제10.3.7.항”은 회사의 경영진,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0.4. RPTKA는 최장 5년 유효하며, 국내 노동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 호에 계속)

민들레 적도

시인 이태복

뜨겁다는 것은
 아물아물 피던 자카르타에서의 감성마저도
 아스팔트 콜타르처럼 허물어 뜨린다
 열병에 초점마저 흐려진 눈
 당신마저 흐려졌나 싶었는데.그때
 민들레를 만났다
 스므해를 넘기니
 그렇게도 가슴 들뜨게 하던 석양의 야자수마저
 속빈 대궁처럼 멍하니 서 있는 무심한 화석이 되어
 일상으로 지나치는 사이. 사이에
 민들레가 피어 있었다
 생의 긴 한숨 돌리려
 별처럼 모레에게 해변에 누워
 진청색 실루엣 하늘을 본다 이때
 민들레 날아 오른다
 드문드문 하얀 유성이
 딱성냥 굵듯 피시씩 사라지고
 바람에 일렁이는 야자수에 그림다는 파랑이 일면
 고향집 느티 나무 아래 이웃 모이듯
 바깥의 남국색으로 갈아입은 얼굴들은
 반짝이는 민들레가 된다
 하늘 구석 구석에 뻗혀
 어느새 별빛처럼
 마른 가슴팍에 뿌리 내린다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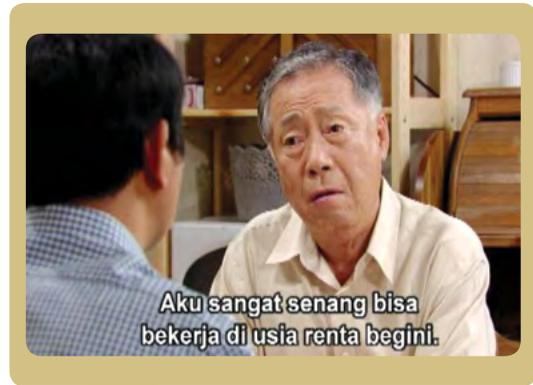
허영순/OKTN (KBS WORLD)

고대하고 기대하던 르바란 연휴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2015년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귀성길 뉴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단순한 휴일이지 만 이들에게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애뜻하고 달콤한 시간이겠구나 싶으니 가사일을 돌봐주는도우미분이 짝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하고 찾아갈 곳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일드라마 가족을 지켜라 “Piliar Keluargaku”

요즘세상을 물질의 노예라고 합니다. 물질로 평가 받고 물질로 댓가를 치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지켜라는 혈연으로 뭉친 가족과 혈연관계를 아니지만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두 가정, 대기업 식품 회사의 가정이야기를 토대로 가족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아들이 명예퇴직 한 사실을 알게 된 노부는 운동삼아 한다는 핑계로 택배 배달 일을 하다 경비원으로 재취직 한 아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힘들고 곳은일 하지 말라는 아들에게 ‘나는 지금 이 나이에(장년의 나이) 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Aku sangat senang bisa bekerja di usia renta begini.

노인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물건도 세월의 흔적을 안고 늙고 낡아지겠지요. 사람이나 과일, 야채는 늙은, 정년이 된, 연로한(고령)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물건은 낡은, 연식이 된 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1. Tua = 젊음의 반의어로 사람이 나이를 먹어 늙은 또는 물건에 오래되어 낡았음을 표현한다. 또는 이미 성년이 된 어른을 표현하기도 한다. [lawan kata Muda, orang yang sudah lama hidup dan tidak berusia muda lagi. Orang yang sudah dewasa,]

- Anak muda harus hormat terhadap orang tua.

젊은이들은 반드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 Orang tua harus dapat menghargai pendapat anak muda.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Orang tua lebih banyak pengalaman daripada anak muda.

어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경험이 많다.

* Orang tua와 Orang yang tua의 차이점, Orang tua 는 사람(Orang)이라는 명사를 늙은 오래 (Tua)라는 형용사로 수식해 주는 하나의 속어로 사용된다. (노인, 성인 어른)

Orang yang tua는 Yang 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사람(Orang)인데 나이든 (Tua)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Tua가 Orang을 꾸며주는 의미로 다르게 사용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

2. Berumur = 장년, 연식이 된, 나이가 든 이라는 뜻으로 40대 이상을 뜻한다. [Orang tua yang berusia di atas 40 tahun.]

- Meski sudah berumur, tanteku masih bersikap seperti anak muda.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모는 아직 젊은이 같이 행동한다.

- Orang yang berumur biasanya akan lebih bijak dalam menghadapi persoalan.

나이를 먹은 사람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한다.

3. Lanjut usia / Lansia(줄임말) = 나이를 먹은, 60세 이상으로 은퇴한 연령의 연장자를 뜻한다. [Orang tua yang sudah mencapai umur 60 tahun atau lebih.]

- Banyak Lansia yang masih produktif di usia mereka.

많은 은퇴연령의 노인들은 아직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 Lansia bukan berarti jompo.

은퇴했다고 힘없는 노인을 뜻하는 건 아니다.

4. Tua renta = 이미 연로한 노인을 말하며 힘도, 이도 없는 상태의 고령의 노인을 뜻한다. [Orang tua yang sudah sangat tua, sudah tidak bergigi dan kurang bertenaga.]

- Meski tua renta, ingatan kakekku masih kuat.

이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좋다.

- Sepasang tua renta itu berjalan dengan mesra membuat hati senang melihatnya.

노 부부가 정답게 걸어라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5. Jompo = 연로한, 매우 늙어서 기력이 없는 상태의 노인을 뜻한다. [tua sekali dan sudah lemah fisiknya; tua renta]

- Kita harus bersikap ekstra sabar bila menghadapi orang jompo.

연세가 많은 노인분을 대면할때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 Meski jompo, para orang tua di panti jompo selalu semangat beraktifitas.

늙었어도(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어도) 경로당의 노인들은 왕성히 활동한다.

** 노인을 비난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는 Tua bangka는 매우 거칠고 예의 없는 단어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Ungkapan kasar untuk memaki orang (tua) yang tabiatnya tidak baik.]

- "Awat kalau kau berani datang kemari lagi, dasar tua bangka!

제길, 노친네, 조심해, 다시 한번 여기 오기만 해 봐라.

2015년 안인회 임원잔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USD)
1	한인회 명예회장	승은호	PT. KORINDO GROUP	2015	19,963
2	한인회 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2015	20,000
3	한인회 명예고문	김재유	PT. NISSI GROUP	2015	5,000
4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	2015	10,000
5	한인회 수석부회장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2015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김영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5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5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희년	PT. DAEWOO SECURITIES INDONESIA	2015	5,000
9	한인회 부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5	5,000
10	한인회 부회장	배응식	PT. KYUNGSEUNG TRADING INDONESIA	2014/2015	10,000
11	한인회 부회장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2015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이재학	PT. KEB HANA BANK	2015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지현	PT. ZIMOAH MARINE	2015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진수	PT. SUNGBO JAYA	2015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호덕	PT. VICTOR JAYA RAYA	2015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최광수	PT. BIG STAR	2015	5,000
17	한인회 부회장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RAH	2015	5,000
18	한인회 자문위원	강덕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5	1,000
19	한인회 자문위원	김석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5	1,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2015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우재	PT. KOIN BUMI	2015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박헌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5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NESIA	2015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송재선	PT. PUTRA HANKUK	2015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2015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15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5	(Rp.)1,346,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2015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최정남	PT. GLOBAL FIBERINDO	2015	1,000
30	한인회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5	1,000
31	한인회 이사	김경국	PT. NES	2015	1,000
32	한인회 이사	김동상	PT. HONGIK INDONESIA	2015	1,000
33	한인회 이사	김상태	PT. SMS GROUP	2015	1,000
34	한인회 이사	김세형	PT. SJ GLOBAL INDONESIA	2015	1,000
35	한인회 이사	김영만	PT. KIPCO UTAMA ENERGY	2015	1,000
36	한인회 이사	김종성	PT. BONGMAN INT'L	2013/2014	2,000
37	한인회 이사	김종헌	PT. KOIN BUMI	2015	1,000
38	한인회 이사	김현재	PT. TOUR 153	2014/2015	1,986
39	한인회 이사	김희익	PT. EPS INDONESIA	2015	1,000
40	한인회 이사	노승원	PT. SGWICUS INDONESIA	2015	1,000
41	한인회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2015	1,000
42	한인회 이사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2015	1,000
43	한인회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2015	1,000
44	한인회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2015	1,000
45	한인회 이사	신규태	PT. INDO SUNG IL	2015	1,000
46	한인회 이사	신만기	PT. PARKLAND WORLD	2015	1,000
47	한인회 이사	안상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5	1,000
48	한인회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2015	1,000

49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5	1,000
50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5	1,000
51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5	1,000
52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PT. L S W	2015	1,000
53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PT. KORINA SEMARANG	2015	1,000
54	한인회 이사	이 윤 상	PT. PAKUWON GROUP	2015	1,000
55	한인회 이사	이 주 한	PT. MEDISON JAYA RAYA	2014/2015	2,000
56	한인회 이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5	1,000
57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5	1,000
58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5	1,000
59	한인회 이사	임 성 필	PT. LSP	2015	2,000
60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2015	1,000
61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2015	1,000
총 금액					\$ 174,949
					Rp. 1.346.000

2015년 한인회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2015년 8월 1일 기준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1	승 은 호	2015	300,000
2	신 기 엽	2015	300,000
3	조 규 철	2015	300,000
4	김 재 민	2015	300,000
5	신 규 태	2015	300,000
6	김 영 환	2015	300,000
7	이 현	2015	300,000
8	최 우 범	2015	300,000
9	최 석 일	2015	300,000
10	오 세 명	2015	300,000
11	김 대 근	2015	1,300,000
12	김 영 룰	2015	1,300,000
13	김 창 근	2015	1,300,000
14	조 영 재	2015	1,300,000
15	김 양 임	2015	300,000
16	안 창 섭	2015	300,000
17	HORISON FORBIS HOTEL	2015	3,000,000
18	최 양 기	2015	300,000
19	홍 석 영	2015	300,000
20	강 덕 재	2015	300,000
21	승 진 아	2015	300,000
22	오 세 윤	2015	300,000
23	강 희 중	2015	300,000
24	김 평 수	2015	10,000,000
25	PT. INDOKO SAKTI	2015	1,300,000
26	한 덕 수	2015	300,000
27	박 재 한	2015	300,000
28	배 응 식	2015	300,000
29	이 순 형	2015	300,000
총 금액			Rp.26,100,000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5949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62. 21. 7919. 2006(Rep.) 070. 4644. 2280(Dir.)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쿵서비스, 캐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인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www.doowang.net | E-mail: doowang@cbn.net.id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짜)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 한인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강희중 회장 0816 798 221
 사공경 부회장/기획 /문협회장 0816 1909 976
 이일하 부회장/공연/음협회장 겸직 /사무국장 0811 19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회원 0878 5480 4815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0811 8120 666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 081677634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제경중 0811 830 477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이수진 0858 8870 6856
 문인협회 회장 : 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 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김인순 0819 0592 2421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 단장 : 이선현 0811 8120 666

<촉탁 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0816 1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우리슈퍼(버카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워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찻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신타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Hits)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163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1066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143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8515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80591625	
세명 하숙	08521757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오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 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공항).....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021)5721 381~3
(공항).....021)5591 3229
싱가폴항공.....021)570 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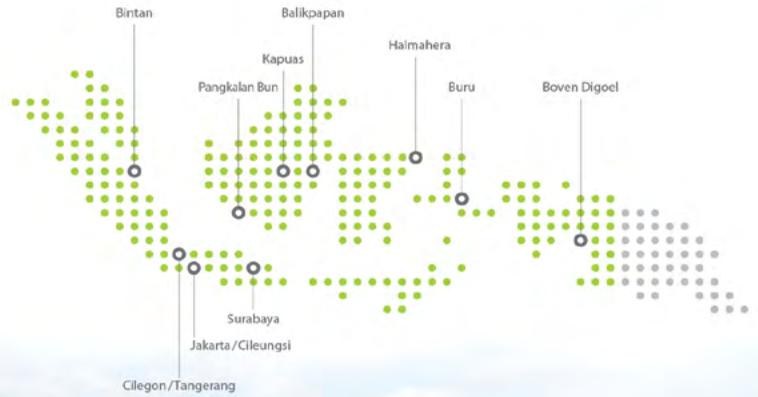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지역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나름’이 아닌, ‘다름’

SAMSUNG INNOVATION MUSEUM

INSPIRING INNOVATIO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el 021.7919.006(Rep.) Fax 021.7919.2062

삼성이노베이션유지엄

모든 사용이미지는 본사 디자인 디렉터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사진입니다.



Chung-Dam Beauty Salon



POSCO INDONESIA INTI



KBS Media Center



Haesley Ninebridge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